

雲門

불기 2563년
가을호
통권 제150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4년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니 따뜻한 등불 하나 빛나고 있네. / 진오 대교과
- ❖ 만행의 꽃으로 장엄된 운문 도량, 결실의 가을, 알찬 보리 수확하기를……. / 무여 대교과
- ❖ 운문사는 수행의 극락국이다. 풍성한 가을에 우리 살림살이도 풍성하게……. / 수진 사교과
- ❖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이여 행복하소서. / 설민 사교과
- ❖ 안목은 높이고 지혜는 살찌는 계절. / 도둑 사교과
- ❖ 선사께서 가신 길을 읊고 쓰고 또 외우며 조심스레 머리 숙여 두 손 끝을 모읍니다. 자비심만 가득하여 온 도량이 평온하길 이 새벽에도 법당엔 간절함만 남깁니다. / 무득 사집과
- ❖ 오늘 하루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길 발원합니다. / 선일 사집과
- ❖ 어디를 가지 않아도 이 자리에 푸른 마음 하늘, 살랑이는 미소바람 다 있답니다. / 진욱 사집과
- ❖ 가을철도 쓴살같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도 나의 상태가 여름철보다는 낫다. 변하고 있다. / 수정 사미니과
- ❖ 바쁜 생활 속에서 나와 너의 경계를 조금씩 뛰어넘고 있는 가을입니다. / 자우 사미니과
- ❖ 맑은 기운 하늘처럼 높고 넓은 마음을 가진 수행자가 되길 발원해 봅니다. / 현지 사미니과

불기2563(2019)년 통권 제150호 가을호

雲門

목차

- | | | |
|----|----------------|--|
| 02 |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 죽림현 | ‘마저작침’의 정진 명성 |
| 06 | 교수논단 | 불살생계를 통해서 본 불교의 생명윤리 ② 진광 |
| 12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학인은 봄산(春山)이다 영덕 |
| 14 | 학인논단 | 「위산대원선사경책」에 대한 고찰 현밀 |
| 19 | 想 | 스님, 소는 어떻게 찾습니까? 문광 |
| 20 | 노스님 탐방 | 노스님께 듣는 운문사 옛이야기
– 광주 신광사 경주 노스님 범성 |
| 24 | 외부기고 | 초기불교인가 대승불교인가 등현 |
| 29 | 깨달음으로 가는 길 하나 | 현재의 소중함 편집부 |
| 30 | 기획연재 | 초기 비구니 승가의 역사 선아 |
| 34 | 깨달음으로 가는 길 둘 | 테리가타 편집부 |
| 36 | 자유기고 하나 | 다시 시작점에 서서 석인 |
| 38 | 자유기고 둘 | 다로경권茶爐經卷 – 백차白茶의 매력 수완 |
| 40 | 운문, 운문인 | 각자의 벼락을 거두는 때 편집부 |
| 42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경주 남산기행 – 굽이굽이마다 올리는 찬불가 우연 |
| 44 | 수행의 두레박 둘 | 기도 총지 |
| 46 | 수행의 두레박 셋 | 몸으로부터 마음 알아차리기 정연 |
| 48 | 차례법문 | 유마 거사가 바라본 불국토의 세상 서륜 |
| 50 | 이 한 권의 책 | 나날이 수행정진하게 하소서 타용 |
| 52 | 운문논평 | 정견과 보살의 원행 편집부 |
| 54 | 운문소식 | |
| 55 | 등불 | 약작보살 편집부 |



‘마저작침磨杵作針’의 정진

명성 / 운문사 회주



운문사 경내 청풍료 뒤 수각 양편에는 무성한 회화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회화나무를 학인스님들이 경학經學하는 도량에 심어 놓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회화나무는 보리수 수목원으로 가는 길에도 있습니다. 수령이 아주 오래된 아름드리 고목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회화나무는 처진 소나무, 은행나무와 함께 늘 운문사의 역사와 함께 한 듯합니다.

회화나무는 보통 ‘학자수學者樹’라고도 불립니다. 주나라 때 삼괴구극三槐九棘이라 하여 조정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고 그 아래에 삼정승을 마주 보며 앉게 하였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나라 때에는 회화나무를 심어 놓은 곳에 선비들의 시전市廛이 열렸습니다. 선비들은 여기서 물품을 거래하기도 하고 특히 책을 서로 빌려 회화나무 아래서 종일토록 읽고 토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무를 선비나무라고도 합니다.

가을 개학공사를 하고 나오며 마주친 회화나무에서 ‘시간은 어떠한 모양이나 실체가 없고 자연의 모습에 의해 드러난다(時無別體 依法而立)’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꽃잎이 화려했던 가지에는 알찬 열매가 열렸습니다. 완연한 가을빛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가을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공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공부하는 데도 그 방법이 다 있습니다. 특히나 부처를 가리는 선불장選佛場에서는 말이죠. 『화엄경華嚴經』「보살명난품菩薩明難品」에는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불법을 알 수 없다. 마치 가난한 사람이 밤낮으로 남의 보물을 헤아려도 자신에게는 한 푼의 이익도 없는 것과 같이, 맹인에게 멋있는 그림을 보여주어도 보지 못 하는 것과 같이, 불법은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하는 것 그것이 도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진실한 모습이다.

위의 내용은 바로 ‘마음으로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다(心不觀照 看經無益)’는 것을 뜻합니다. 학인스님들은 매일 오전 두 시간의 간경수업을 하고 오후와 저녁에는 입선을 통해 복습과 예습을 합니다. 이외의 시간에는 울력 등을 합니다. 즉 운문사 대중의 하루 일과는 오늘 배운 부처님 말씀을 현실생활에서 생각하고 닦아 나아가는 문사수聞思修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마음의 실체를 알게 되고 실체를 알아야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는 이 간경看經과 관조觀照는 시간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至誠無息)고 했던가요? 중국 당나라 시선詩仙으로 불리는 이백李白과 관련된 ‘마저작침磨杵作針’이라는 고사故事가 이 뜻을 잘 비유해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질구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도저히 되지 않을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수행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회화나무가 드리운 청량한 가을날씨에 ‘마저작침’의 정진으로 해탈의 열매 거두시길 바랍니다. ☺

불살생계를 통해서 본 불교의 생명윤리 2

진광 /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연기론적 측면의 불교적 생명관
3. 불살생계와 불교의 생명윤리
4. 불살생계의 현대적 의미
5. 나오는 말



3. 불살생계와 불교의 생명윤리
- 3) 범망경-불살생계

다음은 출가와 재가에 모두 통하는 대승의 보살계인『범망경』10중계의 첫째로서 불살생계와 아울러 살생과 관련된 계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 ▶ 제1 살생하지 말라. – 불살생계不殺生戒
‘불자들아!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

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해서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서 죽이는 따위이니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온갖 생명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에 머물러서 모든 중생들을 방편을 다해 구호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제멋대로 하여 거침없이 산 것을 죽이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pārājika : 가장 무거운 중죄)가 된다’¹²⁾

▶ 제3 고기를 먹지 말라. – 불식육계不食肉戒

‘불자들이여, 짐짓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먹는 이는 대자비 불성종자가 끊어져서 모든 중생들이 보고는 도망하여 가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가 되나니, 만일 일부러 먹는 이는 경구죄(청정행을 더럽히는 가벼운 죄)를 범한다’¹³⁾

▶ 제10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쌓아두지 말라.

– 불축살중생구계不畜殺衆生具戒

‘불자들이여, 일체의 칼 · 봉동이 · 활 · 화살 · 창 · 도끼 등 싸움하는 기구를 쌓아 두지 말 것이며, 짐승을 잡는 그물 · 망 · 뒷 등의 살생도구 일체를 비축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다른 중생을 죽이겠는가. 만일 일부러 일체의 칼 · 봉동이 등을 쌓아 두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¹⁴⁾

▶ 제20 방생을 하여 죽게 된 생명을 구하라.

– 행방구계行放救戒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으니, 내가 세세생생에 그들로부터 태어났음에, 육도 중생들이 모두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잡아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

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라. 일체의 지수화풍이 나의 옛 몸이었나니라. 그러므로 항상 방생업을 행하라. 만약 세상 사람들이 축생 죽이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방편으로 구호해서 그 고난을 풀어주라 … (중략)¹⁵⁾

이상은 살생업과 관련한 생명에 대한 불교 윤리적 측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일체의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들(중생)을 다 나의 부모로 여긴다는 것 등은 바로 연기론적 생명관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하나로 보는 것이다. 특히 대승계인 『범망경』은 전반에 걸쳐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도 생명은 보호하여야 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범망경』의 불살생계에서는 살생의 범주를 6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자살 : 스스로 죽이는 것이니 곧 의도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대승계는 심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명을 해치려는 생각만 해도 불선업을 짓는 것이라 하여 경계하고 있다.

② 교인살敎人殺 :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자신을 위해서나 그 사람 또는 제 3자를 위해 살인행위

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홍찬 스님은 말로 다른 사람을 시켜 살해하는 것(口敎他人殺害)이라 하였다.

『大智度論』에서는 입으로 설득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며, 상처를 입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율부에서는 사람을 시켜서 자객을 보내는 것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곧 교인살은 사람을 대면하여 살인하도록 가르치거나, 사람을 보내 살인하도록 시키거나, 글을 써서 설득하여 살생을 하게 하는 등의 경우를 지칭한다.

③ 방편살方便殺 :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살생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곧 자객을 숨겨놓은 길로 가게 한 다음 죽이거나 약을 먹여 태아가 죽도록 만드는 것, 음식물 등에 독약을 넣어 먹는 사람이 죽도록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④ 찬탄살讚歎殺 : 죽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죽는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는 것이다. 죽음이 아름다운 덕이 됨을 역설하고, 만일 죽음을 실천하면 많은 선공덕을 성취하게 된다고 부추겨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죽음을 찬탄하고 설득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물론, 몸으

12) 『梵經經』第十卷下(大正藏 第24卷), 1004쪽 中段。

'佛言 佛子 若自殺敎人殺 方便讚歎殺見作隨喜 乃至呪殺 殺因殺緣殺法殺業 乃至一切有命者 不得故殺 是菩薩應起 常住慈悲心 孝順心 方便救護 一切衆生 而自恣心快意殺生者 是菩薩波羅夷罪'

13) 위의 책, 1005쪽 中段.

'若佛子 故食肉一切肉不得食 斷大慈悲性種子 一切衆生見而捨去 是故一切菩薩 不得食一 切衆生肉 食肉得無量罪 若故食者 犯輕垢罪'

14) 위의 책, 1005쪽 下段.

'若佛子 不得畜一切刀杖弓箭 斧鬪戰之具 及惡網羅殺生之器 一切不得畜 而菩薩乃至殺父 母尚不加報 況餘一切衆生 若故畜一切刀杖者 犯輕垢罪'

15) 위의 책, 1006쪽 中段.

'若佛子 以慈心故 行放生業 一切男子是我父 一切女人是我母 我生生無不從之受生 故六道衆生皆是我父母 而殺而食者 即殺我父母 亦殺我故身 一切地水是我先身 一切火風是我本 體故 常行放生 生生受生 常住之法 教人放生 若見世人殺畜生時 應方便救護解其苦難… (中略)'

로 찬탄하여 모습을 지어 보이는 경우, 사람을 보내어 찬탄의 말을 전하거나 글을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죽도록 만드는 경우 등이 있다.

⑤ 견작수희見作隨喜 : 다른 이가 죽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죽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이거나 미워하는 이거나를 막론하고, 죽음 그 자체를 기뻐하면 견작수희가 되고 만다.

⑥ 주살呪殺 : 주문을 외워서 귀신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 인도에는 죽은 시체를 일으켜 움직이게 하는 귀주鬼呪가 있었는데, 이것을 ‘비다라毘陀羅’라고 하였다. 아직 부패하지 않은 시체 앞에서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29일 동안 외워, 귀신으로 하여금 시체를 일으키게 한 다음 물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힌다. 그리고 칼을 그에게 주고 수레에 태워 지정하는 사람에게 가서 죽이도록 가르치는 주살법이 있었던 것이다. 또 중국에도 나쁜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이는 술법이 있었다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살생행 위뿐만 아니라, 살생과 관련된 인과 연과 법과 업을 모두 짓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살인은 곧 죽이고자 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초로 일어나는 살심이 바로 인이 됨을 가리키는 말이다. 살연은 죽이려는 마음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살생할 수 있는 구실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가리키며, 살법은 살생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도구 등을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살인과 살연과 살법이 무르익으면 마침내 살업을 짓게 되는데, ‘마침내 명을 끊어 업을 이룬 것(命斷成業)’이 살업인 것이다.

붓다는 살생의 인, 연, 법, 업을 짓지 말 것을 당부하신 다음, 거듭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짐짓 죽인다는

것은 남을 상해할 마음을 가지고 죽이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잘못하여 살생을 저지르고 만 사람에 대해서는 ‘짐짓 죽인 자’라고 하지 않는다.

법장法藏은 『범망경보살계본소』에서 불살생을 첫 번째 계목으로 제정한 뜻을 열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생명을 끊는 것은 업도를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업을 짊어지고서는 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승이나 대승계에서 다 이 살생계를 제정하였다.

② 대비심을 어겨서 해치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살은 무엇으로 체를 삼느냐고 물으면 마땅히 대비로써 체를 삼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다른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릴 수 있어야 하거든 하물며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겠는가.

③ 길러준 은혜를 등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육도의 모든 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인데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④ 수승한 연을 여기게 하기 때문이다. 혹 개미가 나보다 먼저 성불하여 그의 제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일은 알기 어렵지만 만약 개미의 목숨을 해치면 저로 더불어 인연이 없어져서 제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⑤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어서 모두 장래에 법기法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⑥ 보살의 무외시無畏施를 어겨서 잃기 때문이다. 불살생계를 가지는 까닭은 중생에게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주는 것이다.

⑦ 사섭행¹⁶⁾을 어기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의 이리二利 가운데 이타利他가 우선이 되나니 만약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버리게 된다면 교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⑧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온 세상에 보배가 가득 있다 하더라도 능히 목숨과 바꿀 수 없나니 그러므로 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보배를 훔치

는 죄와 같다.

⑨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다. 보살의 대행은 중생을 의지하여 얻는다. 오히려 은혜 갚기를 생각해야 하거늘 어찌 해칠 수 있겠는가.

⑩ 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삼세제불의 가업 家業의 법이 그러하니 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다.¹⁷⁾

생명은 지극히 존엄하고 신성하다. 아름다운 덕성과 결림 없는 지혜를 가지고 끝없는 능력을 발휘할 근원적 힘의 원천이다. 따라서 생명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의 숨은 능력은 존중되고 숨김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생명이 가지는 신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불살생 계율이다.

그러므로 이 계율을 지키는 방법은 죽이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데 있지 않고 적극적인 생명존중과 생명가치의 발휘에 있다. 서로 도와주고 보호하며 아름다운 덕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 가장 훌륭한 선업은 곧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다. 다른 생명을 아끼고 죽이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 생명윤리의 기본이 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요즈음 이야기되고 있는 진정한 Well-being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때이다.

4. 불살생계의 현대적 의미

-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는 생명윤리의 쟁점들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가치체계를 정립하는 것¹⁸⁾이라고 하였는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명과 환경, 생태의 윤리를 거론한다면, 즉 산업화 공업화에 따른 공기와 물(지하수)의 오염과 막대한 산업 공업 쓰레기 및 폐기물 발생, 핵폐기물의 문제, 유전자 조작, 생명복제, 자동차 사고로 인간의 사망, 전쟁과 분쟁, 자살, 낙태, 부실 공사로 당하는 재해와 자연재해(기상이변), 청소년의 입시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 가치관의 부재 등 모든 것들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¹⁹⁾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불교의 불살생계의 생명윤리적 측면들이 현대의 인간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뇌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물질의 풍요와 함께 정신 허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탐·진·치 삼독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하다.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경시하는 풍조가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생명의 살상, 더 나아가 핵문제, 기아와 질병, 컴퓨터 게임이나 영상매체의 폭력과 살

16) 四攝行이란 네 가지로 중생을 포섭하여 이롭게 하는 행으로 布施攝·愛語攝·利行攝·同事攝이다.

17) 『梵網經菩薩戒本疏』卷 第1(大正藏 第40卷), 609쪽 下段~610쪽 上段.

'初提意者 略由十意 一由斷生命業道重故…二由違害大悲心故…三背恩養故…四乖勝緣故… 五並有佛性悉爲當來法器…六違失菩薩無畏施故… 七乖四攝行故…八損過實故…九爲報恩故…十法爾故 三世諸佛家業法爾 不念加害 利益衆生故也'

18) 데미언 키온 지음, 허남결 옮김, 『불교와 생명윤리학』(서울 : 불교시대사, 2000년), 12쪽.

19) 최재목, 『현대의 환경·생태 위기에 대해 과연 '동양철학적 접근'은 가능한가』, 『크로스오버 인문학』(서울 : 장승, 2003년), 117쪽.

인, 자살사이트 등의 폐해로 자살의 증가, 인간성의 상실, 정신병, 환경파괴,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생명경시와 생태적 위기는 어디에 기인하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불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불살생계의 현대적 의미는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가 죽이는 것은 물론이요, 방관하거나, 따라 기뻐하거나 남으로 하여금 시켜서 죽이게 하거나 심지어 살생의 도구를 가지는 것조차도 살생의 범주에 넣어서 경계하고 있으며 그 과보를 설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의 이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유정물뿐만 아니라 무정물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불살생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러한 끔찍한 생명 경시 위기와 생태계 파괴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너와 나 그리고 온 우주가 서로 의지하여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의 온 생명이라는 자타불이의 사상, 소욕지족의 겸박함, 중생의 고통을 같이 슬퍼하고 건져주려는 자비심과 아울러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환만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유마경』에 보면 유마힐이 병문안 온 문수보살에게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만약 일체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낫습니다.’²⁰⁾라고 한 말은 바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불이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실로 불살생계에 담긴 참뜻은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서로 돋고 서로 살리며 살아가도록 그대로 바라보아 주는데 있다. 각각의 생명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이 매몰되지 않고 온전히 발현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불교에서는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이 있다. 이 의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쌀 한 톤의 무게가 7근’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 한 톤의 쌀에는 농부의 피와땀의 노력, 그리고 흙의 품어줌, 햇빛과 비와 바람의 조연助緣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부로 버린다든지 하찮게 여겨 낭비를 한다면 이것은 생명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것이요. 살리지 못 하는 것이다. 밥 한 알을 버리면 지장보살이 그 앞에서 밥 한 알이 다 썩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찰에서는 뜨거운 물을 하수구나 땅에 그냥 버리지 않는다. 미물들이 손상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자비란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생에게 즐거움을 베풀어주고, 가여워하는 마음으로 중생들의 괴로움을 건져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비는 다른 중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이타즉자리’인 것이다.

이와 같이 불살생계의 실천은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된 생태계, 생명, 환경의 위기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0) 『維摩詰經』卷上(大正藏 第14卷), 525쪽 下段。

‘一切人病 是故我病 若一切人得不病者 則我病滅’

5. 나오는 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며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이다.

생명은 살아 있는 그 자체로서 자기의 전 존재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하찮은 하루살이, 모기, 개미에 이르기까지라도 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소중한 것이다. 다만 업(karma : 행위)에 의하여 각기 다른 모습의 결과를 얻었을 뿐 생명이라는 데 있어서는 하나라는 것이다. 하루살이는 하루가 자기의 전 일생이다. 얼마나 기막힌 삶이며 생명인가. 그러므로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는 것은 가장 큰 불선이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한다(好生惡死). 살기 좋아하는 생명체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이며 복을 짓는 것이며 자비慈悲이다.

이는 불자들의 생활실천 윤리규범인 동시에 불교의 근본사상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생명윤리는 인간 생명의 보전만이 아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유기적 삶의 공동체 속에서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기적, 연관적 상호 관계 속에서 그 어느 것도 독존적일 수 없는 연기론적 삶을 자각할 때 세상은 청정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의 생명윤리는 참다운 인간의 길,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는 자비 사상에 근거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윤리란 인간이 자신의 풍요를 위해 자연을 죽이는 구조, 인간이 인간 자신만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소외, 국가가 국가를 지배하는 죽임의 구조를 ‘살림’의 구조로 바꾸는 실천윤리이다. ‘살림’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 사이의 왜곡된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마음이 청정해야 국토가 청정하다(心清淨 國土清淨)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것은 선후의

문제로 이해하지 말고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부처님의 생명방생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불교의 불살생계는 진정 ‘인간다운 길’에 대한 생명윤리요, 규범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는 상대적이고 상황적이다. 즉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살인은 악으로 간주되나 전쟁터에서 살인은 훈장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폭력도 악이지만, 권투선수에게는 출세와 부의 수단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악, 절대적인 선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교에는 지범 개차持犯開遮라는 법이 있다. 이는 곧 시대와 장소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불교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자비경』의 말을 인용하며 마치고자 한다.

‘모든 존재자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소서.
살아 있는 것 모두와 그들이 약하든 강하든 크든지 작든지 간에,
또는 그 중간이든 간에 모두 예외 없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리 혹은 가까이 있는 것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혹은 태어나려 하는 것이거나
모든 존재하는 것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소서.’

학인은 봄산(春山)이다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학감



인생 백 년 한 평생, 누군들 생로병사에서 예외가 있으리오마는 그 가운데 숙세의 원력이 깊어 이제 막 불가佛家의 문에 들어선 이들은 스무 살이거나 삼십이나 사십 오십이거나 나이에 상관없이 신록新綠이다. 신록은 초록이고 초록은 봄이다. 그래서 사미니 기본 교육기관인 운문사는 춘하추동 늘 초록이고 늘 봄이다. ‘삼월이 사미’ 나 ‘초록이 학인’이라고 부른들 누가 나를 탓하랴. 신록의 나이에 출가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지만 혹여 불혹不惑이나 지천명知天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신록이 되어보고 싶은 자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출가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것마다 새로운 것이요, 배우는 것마다 처음 듣는 일이나 새내기의 긴장이 힘들기는 하여도, 부딪쳐보면 신선하고 지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긴다. 청정대해중清淨大海衆 승가僧伽의 일원으로 부처님의 백호상 일본 공덕을 함께 수용할 분들이 생기고, 손가락 끝에 머물던 눈길이 달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 전환되고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

사시사철 온몸으로 유상有相의 도리를 펼쳐 무상無相을 전하는 자연의 전언傳言 가운데 나는 유독 체로금풍體露金風을 맞이한 적막강산의 겨울산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여기에 대하여 길게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제는 열성적으로 청소를 마치고 묵묵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각하조고脚下照顧하고 있거나 며칠 전부터 선배스님들을 맞이할 동문회 음식 준비에 바쁘지만 최상의 노트를 제출하는 봄산의 신록과도 같은 학인스님들을 진정 예찬하고자 함이다.

하루 하고도 밤까지(2019. 09. 22) 쉼 없이 내린 태풍 ‘타파’로 부러지고 꺾인 나무들로 타파된 도량을 아침 대청소로 다시 타파시켜 본래의 모습인 운문조화의 질서 속으로 환원시키며, 묵은 업장마저 ‘칠통타파’ 시키고자 일념으로 도량청소를 한다. 윤주스님이 먼저 빗자루를 드시고 상중하좌가 힘을 합하여 한 시

간 반쯤 지나니 끝이 보인다. 오늘 따라 도량이 더 넓어 보인다. 모두들 합심하여 전력투구全力投球한 덕분에 동문회 준비 일정에 차질 없이 청소가 끝났다. 일에 임해 때론 좌충우돌 각자의 방법대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만 그 또한 소중한 경험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늘 그렇지만 학인들의 젊은 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도량이 건재健在해 왔을까. 일머리를 터주고 가닥을 잡아주고 가장 합리적으로 일을 주도해가는 안목도 온몸으로 일을 해 본 사람만이 터득할 수 있는 지혜이다. 冷暖自知 스스로 차고 더운 것을 경험한 이후라야 체달되는 지혜와 다르지 않다. 일상의 삶 속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마다 일은 늘 있어왔고, 운문사승가대학의 대소 소임들을 치르며 힘든 내색 한 번 흘리지 않고 묵묵히 감당하고 애써온 소임자 스님들이 있었기에 모두가 기쁜 오늘이 있는 것이다. 힘든 과정에서 오히려 삶을 지탱시켜주는 에너지를 만들고 다음 단계의 수행을 감당해낼 자량을 만들며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 투철하게 자기의 수행일기를 써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동문회에서 만나는 스님들의 모습이 더욱 친근하고 소중하게 다가올 것 같다.

학인은 봄산의 어린 짹 풀잎, 우리의 미래이자 대자연의 메시지를 전할 예지자이다.

학인은 청신명랑青神明朗, 봄하늘처럼 싱그럽게 3업業을 닦고 3장藏을 배우고 開思修 3혜를 실천하는 장난꾸러기 나한님들이다. 학인은 얼음을 깨는 도끼, 온갖 번뇌를 쓸어버리고 소박과 겸허 가운데 존철살인의 지혜를 꿈꾼다. 학인은 펄펄 끓는 용광로, 아슬아슬 용케도 배려와 공경으로 화합대중을 만들어 간다. 학인은 ‘노인과 바다’를 낚은 해밍웨이, 인욕풍과 속 내외전 공부를 낚아 기어코 만선월척을 성취한다. 학인은 비상飛翔하는 은빛 갈매기, 자비희사 익힐수록 빛나는 날개! 업의 중력이 사라져간다. 학인은 품고 기다리는 겨울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을 셧어줄 사람이자 위안이고 기쁨인 그대. 학인은 멀리서 깜박이는 샛별이고 등대이고 해탈이다. 학인은 고뇌하고 인내하는 설산의 목자牧子, 모든 병을 고쳐줄 의사이다. 학인은 철저하게 가난하지만 가장 부자이고, 학인은 타고 또 타서 재가 된 사랑이고 찬란한 태양이다. 학인은 세상을 이끌어갈 바른 여론이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힐 등불이다. 학인은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질 불음佛音이자 영혼을 울릴 모음母音이다. 학인은 부처님의 아들 법왕자이다. 깨달음을 향해 부처를 배우는 자! 학인들이 희망이다.

전단나무 숲에는 모든 나무가 전단이듯 부처 속의 부처들이다. 학인은 사자獅子 속의 사자이다. 학인은 호거산虎踞山 속의 호랑이들이다. 학인은 고향의 어머니다. 학인은 봄산이다.

학인들 속에서 오래 살았다. 소리 없이 살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 특별히 내세울 무엇도 없지만 출가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았고 담담하고 평안했다. 운문사 도량이 홀륭한 것은 자기 속에서 답을 찾고, 스스로 길에 설 때까지 말없이 지켜보아 주는 많은 눈, 오래 기다려 주는 자비심, 여정旅程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는 우정,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남모르게 축원해 주는 보살행에 있는데 이 모든 덕화는 문수의 지혜를 쓰시는 우리의 스승 명성明星 회주스님에게서 유출된 교육불사의 원력에서 나온 자비광명이다.

삼가 과거 현재 미래의 학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 ◇

「위산대원선사경책¹⁾」에 대한 고찰

- 출가에 대한 바른 인식의 전환을 중심으로

현밀 / 사미니과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위산대원선사
3. 위산경책
4. 『위산경책』에 나타난 출가의 의미
5. 출가에 대한 바른 인식
 - 1) 출가수행의 본분을 잊지 말라
 - 2) 출가의 의미를 다시 새겨라
 - 3) 출가의 바른 인연을 지어라
6. 인식의 전환이 곧 올바른 수행의 길
7. 맺는말

1. 시작하는 말

출가란 무엇일까?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아 저마다 원력을 세워 출가하였다. 승가에 들어와 강원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치문경훈緇門警訓』은 강원 교과목 가운데 옛 선사들의 주옥같은 경훈警訓이 담긴 책으로 초심자인 학인들에게 올바른 수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다. 말법시대에 태어나 부처님이 가신 지 오래지만 부처님의 법이 생소한 지금 강원에서 『치문경훈』을 배울 수 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할 따름이다. 그중 「위산대원선사경책」이 기억에 남는다. 세속을 여의고 산중에 들어와 삭발염의削髮染衣한 뜻, 출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었으며 오늘날 출가 수행자로서 나태함과 게을러진 태도를 반성하고 앞으로 후학들이 올바른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가지길 바라는 선사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위산경책鴻山警策」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2. 위산대원 선사

위산영우鴻山靈祐(771~853) 선사는 황벽 선사²⁾와 함께 백장회해 선사³⁾의 제자로서 위앙종鴻仰宗의 종조이다. 15세에 건선사의 법상法常에게 출가하였고, 23세에 백장회해 선사의 상수제자가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방장실로 찾아가 법을 구할 때, 백장 선사가 “화로에 불이 있느냐?” 묻자, 여기 저기 불씨를 뒤져본 그는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백장 선사가 화로에서 작은 불씨를 찾아서 집어 들고는 “이게 불이 아니고 뭐냐?”라고 하는 데서 영우 스님은 크게 깨쳤다.

원화 말년(806~820)에 백장 선사의 명을 받고 장사長沙로 가던 도중, 위산에 머물렀는데 인근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감화를 받아 동경사東京寺라는

절을 지었다. 그 당시 재상인 배휴裴休가 찾아와서 공부하니 그 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선과 교를 40여 년 동안 설하며 종풍을 크게 선양하였으며 세상 사람들이 위산영우鴻山靈祐라고 불렀다. 853년 입적하였고 세수가 83세이며 법립은 64년이었다.

시호는 대원大圓이며 『위산영우어록』과 『위산경책』이 한 권씩 전해져 내려온다. 법을 이은 제자로는 혜적慧寂, 홍인洪謹 등 41인이나 되며, 그 가운데 앙산혜적仰山慧寂이 그의 법을 크게 일으키게 되어 이로써 위앙종이 발현되었다.

3. 위산경책

「위산경책鴻山警策」은 『불조삼경佛祖三經』 중의 하나인데, 위산경책과 함께 최초의 한역 경전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 그리고 최후의 가르침으로 알려진 『불유교경佛遺教經』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종禪宗에서도 불조삼경은 초학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 할 만큼 수행에 있어 지침서와 같다. 「위산경책鴻山警策」은 전체 1622자의 길지 않은 글로 이루어졌으며 크게 문文과 명銘⁴⁾으로 나뉜다. 다시 文을 5단으로 나누어 경책의 의도를 상세하게 밝혔는데, 5단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시색신대환示色身大患 : 우리의 이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인연으로 모인 것으로 사대四大가 지탱하더라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한순간에 세상을 달리한다. 이러한 색신色身에 집착하고 무상無常을 알지 못 하는 것이 괴로움인 줄 안다면 어떻게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있는가! 하면서 색신에 대한 바른 견해(正見)를 제시하고 있다.

2) 징출가유폐懲出家流弊 : 부모를 모시지 않고 가족을 떠나 출가하였지만, 지난 세월 동안 세속의 인연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고 시주물을 받아쓰는 일만 많아지며 시주의 은혜를 갚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마땅하다 여기고 있다. 승僧의 무리에 섞여 승복을 입고 오직 탐욕에만 눈이 면 출가 수행자의 폐단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3) 명출가정인明出家正因 : 출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며 드러나는 모습에는 위의가 뛰어나고 품은 뜻은 높아야 한다. 항상 좋은 벗을 가까이하고 다시 사람 몸 받기 어려우니 충고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출가의 바른 인因을 짓도록 제시하고 있다.

4) 시입도유示入道由 : 참선參禪으로 올바른 인因을 깨달으며 모든 법은 실제 경계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니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 한

1) 본 논문은 「정선현토 치문」, 운문승가대학 출판부, 2003을 저본으로 한다.

2) 황벽희운黃檗希運(?~850)은 복주福州 사람으로 당나라 고승高僧이다. 황벽산黃檗山으로 출가하여 백장회해百丈懷海의 가르침을 이었으며 임제종의 종조이다.

3) 백장회해百丈懷海(720~814)는 당나라 고승으로, 백장산百丈山에서 살았으므로 백장이라고 부르며 법명은 회해懷海이다. 육조혜능, 남악회양, 마조도일에 이어 제9대 조사이다.

4) 명銘은 운문형식으로 산문의 내용을 계송으로 제시하고 있다. 文을 5단으로 나눈 것은 명나라 道霈 스님이 「鴻山警策指南」에서 서술하였다.

가지 배움에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챙겨 나간다면 모든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

5) 결권정녕結勸叮嚀 : 불도를 이루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출가의 본뜻을 세워서 금생에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한다. 이 공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 의견을 묻고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택決擇하는 것은 바로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산경책」에 나타난 출가의 의미

「위산경책」에서 “출가한 사람들은 발걸음을 뛰어넘어서 마음과 형상을 세상사람과 달리하고, 세속적인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지혜의 종자를 가꾸는 성인聖人の 무리에 들어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군의 무리를 항복 받고, 사은 곧 부모와 삼보와 중생과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며, 삼계三界⁵⁾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을 고통에서 제도하기 위함”⁶⁾이라고 출가의 본 의미를 제시한다.

출가에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다. 출가의 첫 관문인 어버이를 여의고 세속의 집을 나서는 것이니 불법에 귀의하여 처음 발심하는 마음인 초발심을 말한다.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즉 부처

를 이루고자 처음 발심할 때의 그 마음이 곧바로 깨달음.”이라는 시작하는 마음을 굳건히 해야 마침내 일을 성취할 수 있으며 첫걸음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두 번째 관문으로 도를 깨달아 오온五蘊⁷⁾의 집을 나서는 것으로 이는 세속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삼법인三法印⁸⁾의 깊은 이치를 알아야 하며 참선수행을 통해 무명無明에서 명明으로 업을 녹이고 지혜를 밝혀야 한다. 세 번째인 마지막 관문은 불도佛道를 이루어 삼계三界的 집을 나서는 것이니 생사윤회生死輪迴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인 삼독三毒의 불길이 완전히 사라진 열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5. 출가에 대한 바른 인식

1) 출가수행의 본분을 잊지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른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챙기는 모습이 없고 혹 큰소리로 말해도 전혀 법도가 없으며, 정해진 차례를 지키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엉터리 바라문 집단이나 다름이 없다.”⁹⁾ 출가자라면 수행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한다. 스스로 수행을 하지 않고 말과 행동에는 전혀 법의 근거가 없으며 승가에 있으면서 대중을 위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5) 중생들이 생사 윤회하는 세계를 3단계로 나누어 옥계·색계·무색계의 세 가지로 설명하며 삼유三有라고도 한다.

6) 夫出家者는 發足超方하야 心形異俗하며 紹隆聖種하야 震攝魔軍하며 用報四恩하고 拔濟三有니라.

7)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가지이다.

8)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 열반직정인涅槃寂靜印을 말한다.

9) 未譜法律이어 戟斂全無하고 或大語高聲이라도 出言無度하며 不敬上中下座하니 婆羅門聚會無殊로다.

쌓이는 업만 더욱 깊어져서 지은 업의 과보를 참으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출가의 의미를 다시 새겨라

“부모를 떠나서 결연한 의지로 먹물 옷을 입은 뜻이 어느 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며, 아침저녁으로 그 일을 생각하면 어찌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있는가. 불법의 대들보로서 훗날 모든 이의 귀감龜鑑이 되기를 마음 속으로 다짐해야 한다. 늘 이러한 마음을 지니더라도 조금도 출가한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다.”¹⁰⁾ 세월이 흐르고 현실에 타협하다 보면 방종해지고 게을러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처음 발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세속을 떠나 삽발 염의削髮染衣한 의지와 열반涅槃이라는 자유를 위해 결심한 거룩한 뜻을 매일 다시 마음 속에 새겨야 한다. 이 뜻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모든 이를 위한 사랑과 자비로써 마음을 크게 품어야 한다. 선사는 이러한 마음으로도 출가의 본뜻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천이 없다면 마음 속에 묻어둘 뿐이고 부처님과 사은四恩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였다.

3) 출가의 바른 인연을 지어라

“소나무를 의지한 침녕窟이 천 길이나 솟아오르는 것처럼 훌륭한 인연을 따라서 공부하면 모든 이들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정성껏 아름다운 삶을 살아 헛되이 남을 속이거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¹¹⁾ 좋은 인因이 있어야

훌륭한 과果를 얻을 수 있다.(善因樂果) 불과佛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지식과 좋은 도반을 두어야 한다. 자주 귀와 눈을 막히고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묻고 들어서 공부해야 한다. 이처럼 바쁜 수행의 환경에 처하게 되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점차로 옷이 젖어들 듯 자연스럽게 수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6. 인식의 전환이 곧 올바른 수행의 길

출가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출가의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곧 출가자가 지향해야 하는 길이다. 수행은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자신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수행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비워가야 한다. 거울 앞에 서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준다. 그러나 거울에 때가 끼었다 해서 거울이 아닌 것이 아니다. 다만 때가 있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업식業識과 습식習識에 가려 본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세속에 대한 욕망과 집착의 번뇌가 장애가 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아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아차려야 한다.

「위산경책」에서는 안팎의 모든 법이 실제 경계가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 모두 임시로 갖다 붙인 이름인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10) 辭親決志被縕는 意欲等超何所오. 暝夕思忖간단 墓過遷延過時리오. 心期佛法棟樑하야 用作後來龜鏡이어다. 常以如此라도 未能少分相應이니라.

11) 倚松之葛이 上聳千尋이듯 附託勝因해야 方能廣益하리니 懇修齋戒하여 莫謾虧罰이어다.

이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올바른 인因을 깨닫는 이것이 티끌 같은 번뇌를 벗어나는 과정이며 이를 올바른 수행이라 말하였다. 또한 수행의 전부인 선지식과 도반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아가는 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게 하는 도반과 선지식의 충언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큰 힘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출가에 대한 바른 의미를 새기고 스스로가 출가 수행자로서 실천적 수행을 통해 본분을 잊지 않고 부처님 법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맷는말

「위산경책」은 출가에 대한 바른 의미를 제시한다. 왜 출가했으며, 출가 수행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도를 이루어 나그네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꿈과 같은 세상에 속지 말고 진정한 무아無我의 경지를 알아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며 늘 깨워주고 있다. 우리는 항상 원력과 신심으로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 이제는 단지 출가자가 아니라 출가보다 더 큰 의미와 의무로써 보살菩薩이라는 목표를 향해 수행해야 한다.

대장부로서 출가의 뜻을 널리 전하고 바른 인식을 가지며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을 곁에 두고 마음을 밝혀서 무엇이 중요한지 스스로가 늘 알아가고 깨달아야 한다. 이 길의 끝은 어느 누구도 알려 줄 수 없다. 오로지 자신만이 할 수 있다. 배우고 받

아들이는 입장에서 바른 인식을 가지려면 항상 바른 법正法을 자신의 마음 속에 새기며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야 한다. 고집固執과 아집我執이 아닌 부처님과 선사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말이다.

“안으로는 부지런히 헛된 생각들을 극복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없는 온화한 덕을 드러내어, 어지러운 세상을 훌쩍 벗어나 해탈할 날을 기약해야 한다.”¹²⁾

마지막으로 「위산경책」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말씀들이 메아리 없는 긴 외침처럼 책으로만 묻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그것을 온전히 자기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을 것이다. 필자 또한 이 글을 쓰면서 새로운 계기로 삼아 선사의 깊은 출가의 뜻을 다시 새기며 출가 수행자의 참다운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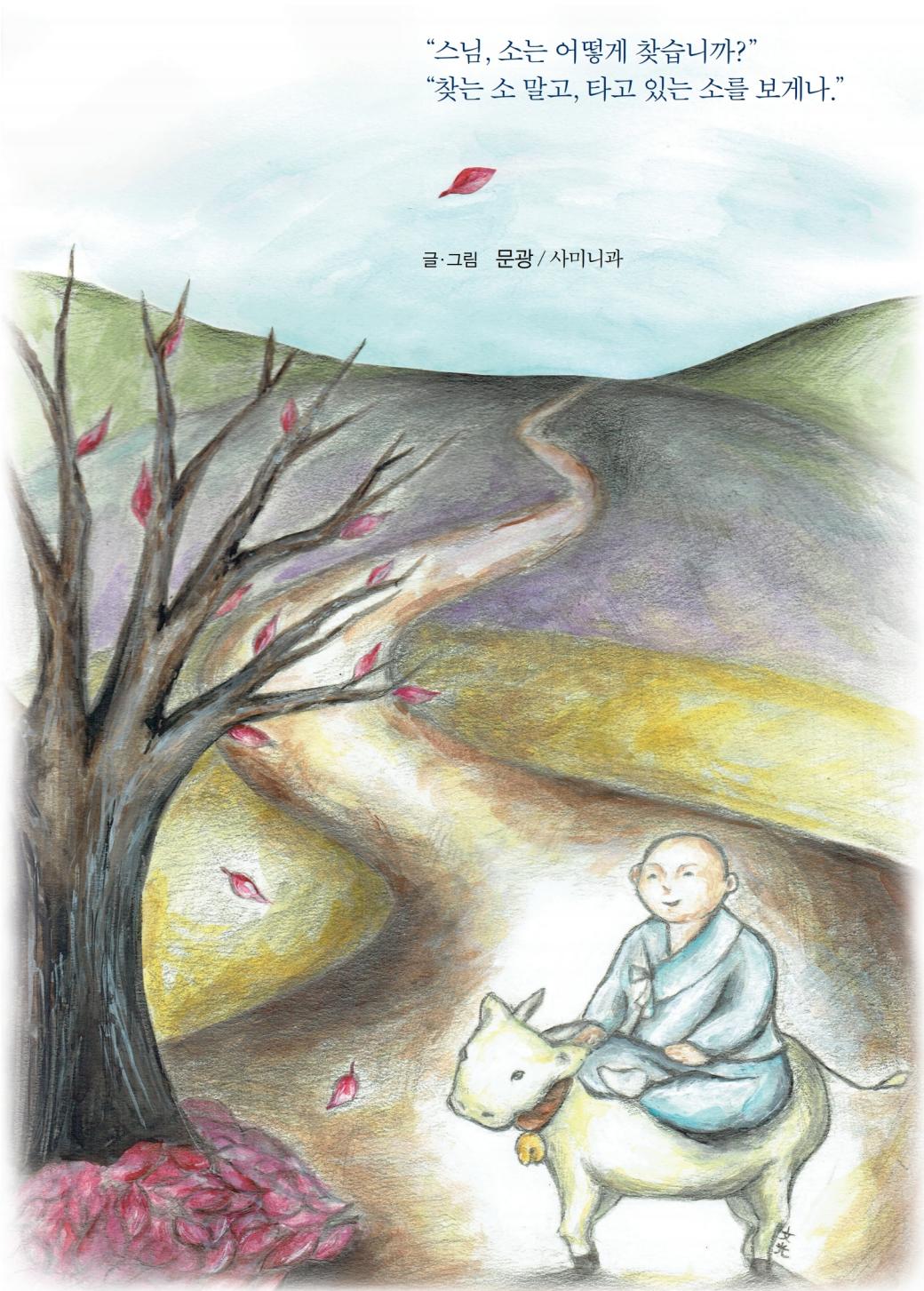
〈참고 문헌〉

1. 「위양록」, 백련선서간행회, 장격각, 2003
2. 「조당집」, 김월운, 동국역경원, 2008
3. 「정선현토 치문」, 운문승가대학 출판부, 2003
4. 「치문」, 원순 스님, 법공양, 2009

12) 内勤剋念之功하고 外弘不諍之德하야 囂脫塵世하고 畿期出離이다.

“스님, 소는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소 말고, 타고 있는 소를 보게나.”

글·그림 문광 / 사미니파





노스님께 듣는 운문사 옛이야기

– 광주 신팍사 경주 노스님

범성 / 사교과



내내 오던 비가 잠깐 그치고, 밝은 햇살이 몸도 마음도 환희 비춰주는 그날에 처음으로 광주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만큼 함박 미소를 지으며 맞이해주시는 노스님들. 운문사의 산 역사이신 경주 노스님을 뵙고 옛이야기를 청했습니다.



출가를 하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이 일어나던, 열일곱 그때, 우리 동네(전남 완도 소안도)에 하룻저녁에 불을 질러놓으니까 그날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걸어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신팽사 절에 왔는데 아무것도 몰랐어. 절이 뭔지. 정광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삭발을 해줬지. 정광 스님 덕택에 지금까지 살아. 7일 만엔가 17일 만에 계를 받았지. 그래서 선방 같은 데 가면 내가 스님 덕분에 좋은 곳에 왔다고 항상 감사드렸어. 선방에서도 난 소임을 많이 맡았고. 또 어딜 가나 감투를 써야 했어. 그렇게 소임을 사방천지 땅기면서 살다가 이제 여기 와서 끝을 낼랑가 어쩔랑가. 허허.

불교정화운동¹⁾과 운문사

운문사에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스님네가 소임을 살았었고, 그 뒤에 우리 혜운 노은사스님이 주지로 가셨어. 그래서 그때 내가 은사스님 모시고 총무소임으로 갔지. 그때 한 20명 살았어요. 정화되고 우리가 바로 들어간 거지.²⁾

그때는 정화운동으로 대처승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제일 앞에서 지휘하셨던 분이 혜운 은사스님이야. 대처승은 자식이 있으니까 나가서 살고, 우리 스님네들은 독신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독신 비구, 비구니가 절을 다 지키고 부처님 공부하며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지.

어떨 때는 막 싸울 때도 있고, 한쪽으로는 좋게 말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서로 욕도 하고 많이 싸웠지. 신발을 벗어 가지고 신짝으로 싸우고. 머리가 있어야 잡아댕기지. 허허.

어디든지 정화 때는 그랬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쫓아내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그런 세상을 살았어. 그것도 참 못할 일이더구만. 남한테 욕하고 싸움하고……. 지금은 우리 스님들, 편하게 살지.

우리 혜운 은사스님과 내가 한 2년 사이에 운문사에 머물면서 대처승과 싸우고 절 소유의 땅 찾고 그런 거야.



혜운 노스님 부도탑과 사리

1) 불교정화운동 : 1954년부터 1962년까지 벌어진 불교내 자정운동. '정화운동淨化運動' 혹은 '정화불사淨化佛事'로도 불리며, 대체로 1954년부터 1962년까지 대처승의 배제, 한국불교 전통 재건, 불교 근대화 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불교내 자정운동이다. 본래 대처승은 한국불교의 독신 전통과 달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승려들을 강제 결혼시키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불교정화운동은 우선 일본 불교의 대처승단 영향으로부터 한국 불교의 독신 승단 전통을 복원시키려는 운동이었다.

2) 1954년 불교정화운동 후, 운문사 역대 주지스님 : 월광금광(1954년 말 주지부임), 2~3대 성월수인(1958), 4대 태허묘전(1966), 5대 선화태구(1970), 6대 진금혜운(1974), 7대 백련혜안(1976~1977), 8대~12대 법계명성(1977~1998), 13대 정장혜은(1998~2002), 14대 원해홍륜(2002~2006), 15대 명해진성(2006~2010), 16대 원운일진(2010~2014), 17대 원명진광(2014~2018), 18대 원정운산(2018~)

꿈에서 본 법당 마룻장, 땅 문서를 찾다

대처승이 안 나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토지 때문에 많이 싸웠지. 자기네 것이라고 하니까. 대처승이 나갈 때 논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싸운 거지. 저 운문사 밑, 절 입구에 있는 집에다 대처승이 자기네 가족과 살았어요. 대처승 밑에는 무서운 사람이 많았어. 전부 자기네 재산으로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소송도 하고 어떻게든 논을 찾아야 했어. 맨날 싸우는데 논을 못 찾으면 큰일이잖아요.

그 마음이 간절해서인지 어느 날 꿈에 살짝이 법당이 보이지 않겠어? 바로 그 다음날 낮에 법당 여기 저기를 뒤졌지. 대웅전 마룻장까지 뜯어보니 거기에 논과 밭 땅문서가 있었어. 요만한 주머니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속에 모셔져 있지 뭐야. 그 문서를 증거로 논이나 밭을 찾았는데, 몇십만 평이었는지는 모르겠어. 문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었지. 그 문서대로 땅을 찾았으니까. 또 우리가 모르고 안 찾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제일 논이 많은 곳이 운문사라고 그랬거든.

또 그때 대처승 쪽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 우리는 힘이 없고. 그래도 도와준 형사들이 있어서 가능했어. 참 고마운 일이지.

가난했던 절, 운문사

처음에는 운문사가 비구니 강원이 아니었어요. 대처승 몰아내고, 그 뒤에 완전히 정리가 되고 논, 밭 찾고 정리되고 그러면서 ‘운문사에 비구니 강원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지.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는 아주 더러웠어. 하도 더러워서 다락에서 자고 그랬어. 대처승들이 부처님 법은 공부 안하고 잣밥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도량을 가꾸었겠어요? 청소도 안하고 정리도 안하고. 엉망진창이었지.



그때는 소나무만 많았고 건물이 지금처럼 많이 없었어. 별게 없었지. 법당은 옛날 것만 있었고. 지금은 운문사가 참 많이 커졌어. 지금 명성 스님이 참 애쓰셨지.

가난하기는 말도 못 했어. 탁발로 먹고 살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운문사 도량에 나무도 여러 그루 심었지. 잣나무, 밤나무, 감나무……. 가을에 따먹으려고 다 심었어.

옛날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하수처리가 안 되잖아요? 새벽에 도량석을 해야 되는데 물이 종아리까지 차올랐어. 양말 벗고 고무신 신고 옷 등등 걷어서 가고 있는데,

뭐가 쓰윽 지나가는 것이 느껴져. 알고 보니 뱀이야. 옛날에는 뱀이 그렇게 많았지.

그래도 운문사가 넓고 좋아. 그때 모 심고 보리 타작하고 콩도 심고, 두부도 만들고. 일 많이 했어. 그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 같아. 한마디로 때가 묻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지.

아무리 공부해도 선방 한철 나는 것만 못하다

나는 제일 처음에 천안 광덕사 선방에 처음 발 디뎠어. 선방도 냉길 만큼 냉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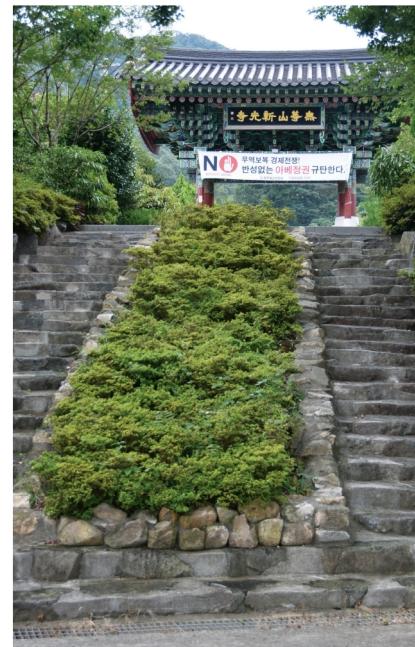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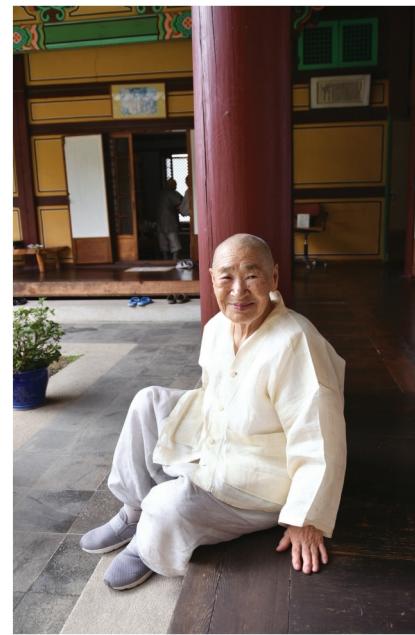
어디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인연 따라 가다보면 도반이 다 생겨. 자신이 익지 않았으면 대중이 많은 곳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용맹 정진할 때면 잠도 안 자고 눕지도 못 하고. 그럴 때는 울음도 나와.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은 6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그거 조금도 못 하나? 그런 생각으로 했지. 선방에 가 보면 좋기도 하고 힘도 들지 만, 우리 마음 살피는 거니까 정진하지. 수덕사에서 정진할 때가 제일 좋았어. 거기서 마지막을 마칠 줄 알았어, 내가.

견성암에서 정진하고 있으면 아랫마을 면 데서 동네 사람이 부는 통소 소리가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 이것(신팽사)만 마치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어.

지금도 나이만 아니면 선방으로 가고 싶은데, 나이 먹었어도 받아준다 하면 가겠지만 내가 내 양심에 가면 안 되지 싶어. 허허허. 그래서 지금도 내가 큰방에서 혼자 죽비 치고 관세음보살 하면서 앉았다가 예불하고 그래.

앉아서 화두 드는 게 너무 막막한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아니야. 그거. 밥 먹으면 한 숟갈에 배불러? 자꾸 해야 느는 거지. 한철이라도 꼭 선방에 앉아야 돼. 아무리 공부해도 선방 한철 나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모두 열심히 해서 선방에 가세요.

하루저녁 쉬고 가도 괜찮다고 하시며 내일 천천히 가라는 노스님의 무한한 정과 배려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5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한 듯, 노스님의 옛날 운문사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논으로, 밭으로 다니셨던 선배스님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꿋꿋하게 운문사를 지켜주신 선배스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



초기불교인가 대승불교인가

등현 /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장

1. 서론

대승불교는 초기불교가 개인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개인보다는 중생의 제도를 위하는 수행으로써 소승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서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대승을 외도로 치부하고 용수보살을 불법을 파괴시키는 이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필자는 이 양쪽의 견해 중 어느 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오랫동안 있었고, 이 의문 때문에 수행에 전념하기가 어려웠다. 그 의문이 화두가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원전으로 대소승의 경전을 섭렵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오해였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

불교의 수행방법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관止觀이다. 초기불교, 구사, 중관, 유식, 천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행법은 지止(samatha)와 관觀(vipassana)으로 귀결된다. 지止(samatha)로 ‘닦아서 사라지는 번뇌(修惑, bhāvanāheya)’를 버리고, 관觀(vipassana)으로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見惑, darśanaheya)’를 다스린다. 이를 견도見道(darśana-mārga)와 수도修道(bhāvanā-mārga)라 하는데,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見惑, darśanaheya)와

닦아야 버려지는 번뇌(修惑, bhāvanāheya)라는 두 가지 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서 그렇다.

견혹見惑은 이지적 장애이고, 수혹修惑은 감성적 장애이다. 삼독三毒으로 보면 견혹은 치심癡心이고, 수혹은 탐진심貪瞋心이다. 탐진치貪瞋癡를 다스리는 것은 모든 종파가 공히 인정하는 수행이다. 탐진은 거듭 닦아 다스려야만 하고(修道, bhāvanā-mārga), 치심은 보면 사라진다(見道, darśana-mārga).

초기불교에서는 4선정에서 고락희우 시비분별이 다 끊어짐을 적정(upekha)이라고 하고, 이때 나와 법의 실체를 보는 법의 눈이 생겨 4성제와 12연기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선가에서는 적寂의 상태에서 법의 실체를 보는 것(照)이라 한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적조寂照, 적적성성寂寂惺惺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유식에 와서는 이 두 가지 번뇌, 견혹과 수혹을 번뇌장(klista āvaraṇa)이라고 하고 6지 보살이 되어 이 번뇌장을 끊어버린다.

2. 본론

2-1. 초기경전의 아라한

초기불교의 수행법은 첫 세 경전에서 윤곽이 드러난다. 그것은 『초전법륜경』, 『무아상경』, 『불타오름경』이다. 『초전법륜경』에서 4제의 3전三轉 12행상行相을 강조하는데, 4성제를 아는 것은 견도見道이고, 사성제를 실천하는 것, 즉 고의 원인을 8정도를 통해서 닦아 나가는 것을 수도修道, 그리고 4성제를 통달하여 고의 원인을 소멸하고 열반을 중득한 상태를 무학도無學道라 한다.¹⁾ 또 견도는 수다원과에서, 무학도는 아라한과에서 얻게 되는 것인데, 오온이 무아임을 중득하면 수다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느 대상에도 집착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아라한 또는 무학위라고 한다.

『무아상경』²⁾에서는 오온무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하고 계신다. 몸, 느낌, 개념, 욕구, 의식이 다섯 가지를 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고, 이 오온에 대한

1) S56:11(PTS), '3전' 이란 4성제에 대한 알, 4성제에 대한 수행, 4성제의 성취이다. 이는 『초전법륜경』에서 "알아야할 것은 알고, 닦아야 할 것은 뒤있으며, 이루어야 할 것은 이루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말한다. '12행상' 이란 사성제 각각에 대해서 위의 세 가지 지혜를 곱하면 12가지 형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S22:59, Vin.i.13-14. 율장 주석서인 samantapāsādikae에 의하면 『초전법륜경』을 설하신 지 5일 후에 『무아상경』을 설하셨다고 한다.

집착과 애착을 놓아버리면 바로 번뇌의 소멸이라는 것이다. 『불타오름의 경』³⁾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6근이 6경을 촉해서 받아들인 락, 고, 무덤덤함, 이 세 가지 느낌에 대해서 각각 탐진 치貪瞋癡가 발생하고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기 때문에, 6근의 경계에 집착할 것이 없음을 강조하여, 대상에 대한 집착을 소멸하는 아라한의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초기불교의 깨달음은 아我(오온)에 대한 미혹을 끊은 수다원과 3계에 대한 욕망을 끊은 아라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다원의 오온무아는 애고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소멸한 아라한은 대상에 대한 탐진을 다스리는 것이다.

2-2. 『금강경』의 아라한

『금강경』은 대승경전 중 특히 중관학파의 소의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금강경』 역시 인무아와 법무아를 강조한다. 『금강경』에서는 2가지 수행을 동시에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민심의 실천이다. 연민심의 대상은 모든 6근의 대상이고 형상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중생들인데, 이들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여야만 보살행이 된다. 둘째, 이 모든 중생들을 행복한 열반에 들게 하여도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무아와 법무아, 즉 도와주는 주체인 '나' 와, 도와줘야 할 객체로서 '대상'의 자성이 공하여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 9장에서 수다원은 '색·성·향·미·촉·법'의 어느 법에도 들어감이 없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정의한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나는 수다원의 과위果位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수다원의 과위果位를 얻었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다원은 어느 법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색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 외의 무엇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흐름에 든 자'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흐름에 든 자'가 '나는 수다원과 를 중득했다'고 하면 이는 곧 나와 중생과 수명과 사람이라는 개념에 집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⁴⁾

3) SN.35:28. 율장의 대품에 의하면 불타오름 경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지 2개월 후 1안거를 사르나트에서 지내신 후 우루웨라의 네란자라 강 유역에서 3가섬과 그들의 1000명의 제자에게 설하신 법문이다.

4) tat kasya hetoh? na hi sa Bhagavān kāmcid [dharmaṁ āpannah]. tenocyte srotaāpanna [iti.] narūpam āpanno na śabdān na gandhān na rasān na sptaś-avyān na dharmān āpanna . tenocyte srotaāpanna iti, saced Bhagavan srotaāpannasyaivaṇ bhaven: mayā srotaāpatti-phalam prāptam [iti,] sa eva tasya-ātma-grāho bhavet sattva-grāho jīva-grāhaṇ pudgala-gr hoābhaved [iti]

원래 수다원은 흐름(流, srota)과 들어감(入, āpanna)의 복합어이다. 글자 그대로 하면 ‘흐름에 들어감’이고 열반의 흐름에 들었다는 뜻이다. 열반의 흐름에 들어간 자는 그 어느 곳에 집착함이 없어야 할 것이기에 6경의 어느 법에도 들어감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수다원은 수다원에 들었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온이 무아임을 중득하였기에 법法 또는 대상에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이다. 아라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라한이 아라한과를 얻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라한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였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어떠한 법에도 아라한이란 이름의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고 하면 이는 곧 나와 중생과 수명과 사람이라는 개념에 집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⁵⁾

2-3. 『10지경』의 보살 수행

『10지경』은 대승보살행의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초지보살인 환희지歡喜地(Pramuditā Bhūmi)에 들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연민심 둘째, 공성空性의 중득 셋째, 부처가 되기를 발원함(發菩提心)이다. 이를 요약하면 오온 자성개공을 중득하고 보살행을 실천함이라고 할 수 있고, 오온개공이라는 점에서 수다원과 초지보살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구지離垢地(Vimalā Bhūmi)에 머무는 보살은 10선의 실천과 그 과보에 대한 고찰을 하고, 발광지發光地(Prabhākarī Bhūmi)에 머무는 보살은 4선禪4정定, 4무량심無量心, 오신통五神通을 닦으며, 염혜지焰慧地(Arcismatī Bhūmi)에서는 열 가지 빛과 37조도품助道品을 닦아 들어간다. 난승지難勝地(Sudurjayā Bhūmi)의 보살은 사성제四聖諦와 방편의 성취를 닦고, 6지의 현전지現前地(Abhimukhi Bhūmi)에서는 12연기緣起에 대한 깨달음과 3혜탈문解脫門을 성취한다. 이때 6지보살은 지혜의 측면에선 아라한과 동일하다. 다만 원력과 보살행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을 뿐이다. 6지까지의 수행 방법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 경전인 『사문과경』의 수행 과정과 유사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

5) Bhagavān āha: tat kiṁ manyase Subhūte, api nv arhata evam bhavati: mayā-arhattvam prāptam [iti]?Subhūtir āha: no hīda Bhagavan, [na arhata evam bhavati: mayā arhatt vam prāptam iti.]tat kasya hetoh? na hi sa Bhagavan kaścid dharmo yo'rhan nāma, tenocaye' rhann iti, saced Bhagavann arhata evam bhaven: mayā-arhattvam prāptam[iti], [sa] eva tasya-ātma-grāho bhavet sattva-grāho jīva-grāha pugala-grāho bhavet.

3. 결론 – 아라한인가 보살인가

출가한 승려에게 있어서 이상향은 아라한 또는 보살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두 길을 가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깨달음이 있다. 그것은 오온무아 또는 오온 자성개공을 중득하는 것이다. 오온무아를 중득하고 나서는 열반만을 생각하며 대상에 대해 무심하거나, 아니면 대상을 교화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초기불교 수행을 오래 하던 중 갑자기 나의 현실적 존재를 자각하게 되었다. 나는 기원전 6세기도, 남방도 아닌 21세기의 한국에 살고 있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자각이었다. 지금 당면한 한국불교의 현실과 문제는 기원전 6세기의 불교나 인도, 스리랑카, 티베트와는 다른 수행의 현장과 현실이 있는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불교는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자가 적어지는데 이것은 문명의 발달과 수행이 반비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율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회와 시대에서는 계율을 엄정하게 지키는 것만큼이나 자비심과 연민심이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불교에는 다양한 종파가 있지만, 모든 종파의 불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통의 소멸이다. 다만 초기불교가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자신의 고통이고 대승불교는 중생들의 고통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종교는 사회적 욕구의 반영이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불교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대승과 초기불교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를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불법 자체는 높낮이가 없고, 다만 ‘그 시대가 원하는 수행자상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수행이 그 시대에 더 유익하고 실천하기 용이한가?’ 만 있을 뿐이라고. ☺



강혜剛慧 등현騰賢 스님

현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장

1986년 근일 대종사를 은사스님으로 득도, 백양사 강원 이후 고운사 선원 등 제방에서 정진, 1994년 스리랑카 비구불교대학에서 팔리불교 전공, 이후 인도 푸네대학에서 산스크리트 학사, 팔리 석사, 인도철학 석사를 취득한 후 푸나대학에서 ‘불교의 열반과 힌두교의 해탈론 비교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 그 후 바라나시에서 쌍스크리트어 티베트어 대조로 『구사론』 주석, 『입증론』, 『십지경론』 등을 번역 중.

2016년 동국 역경원에서 쌍스크리트 티베트어 사전 번역

2019년 1월부터 불교신문에 ‘초기불교에서 선까지’ 연재 중.



현재의 소중함

과거를 죽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오로지 현재 일어난 것들을 관찰하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고 실천하라.

- 중아합경



초기 비구니 승가의 역사

선아 / 사교과





‘최초의 비구니는 어떻게 성립되었을까?’ 깨달음 뒤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삶’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어떠한 삶을 맞이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듯하다.

부처님 성도 후 1,250인의 인재가 모여들며 무리 없이 성립된 비구 승가와는 달리 비구니 승가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립된다. 마하파자파티로부터(최초의 비구니) 세 번에 걸친 출가의 청이 있었으나 부처님께서 우려를 나타내며 모두 거절하셨기 때문이다. ‘부처님께 흔쾌히 허락된 출가가 아니라는 시발점’ 이것은 양날의 칼이 되어 비구니 승단을 따라붙는 시시비비가 되었다.

초기 비구니 승가와 관련된 자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부처님께서 안거하셨던 곳의 지명, 비구니 승가 성립과 관련된 자료, 아난의 출가 연도 및 아난이 부처님의 시자가 된 시기를 산정해 비구 승가가 성립된 지 20년 후에 비구니 승가가 성립했을 것이라고 추정 할 뿐이다.

아난은 비구니 승가 출현에 매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여성도 출가하여 수행하면 비구처럼 아라한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과 여러 차례의 간청(그 첫 번째 영광을 부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신 마하파자파티에게 주십시오!)을 통해 여성들을 도와 부처님을 설득하였으며 여성 출가를 승낙 받는 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부처님 입멸 후 가섭 또는 보수주의적인 부처님의 일부 제자들로부터 여성의 출가를 부처님께 간청한 일로 큰 곤욕을 치뤘다.

부처님께서는 여성 출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진보주의적 아난 등의 제자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보수주의적 가섭 등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의견 대립에서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수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섭과 아난 중 한 사람이라도 대중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도록 놓아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의 승낙을 얻지 못하고 인도 사회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사발하고 500명의 여성 출가자를 이끌고 온 것은 부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었으리라 추측해 본다.

초기 비구니 승가가 성립된 시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온전하게 퍼지지 않았을 때였으며 불교를 옹호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았던 때였다. 또한 비구 승가의 계율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초기 승가는 신도들의 시주가 일정하거나 충분한 지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유행遊行과 금속 수행이라는 위험성, 타발을 위해 도시로 이동 시에 발생될 위험 등이 여성의 비구니로 생활하는 데 위협과 장애가 되었다.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손을 낳는 역할 외에는 여성은 존중하지 않는 당대 사회의 인식 또한 문제였다.

바라문 지배계급이 통념된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의 행보가 자유롭지만은 않았기에 비구니 승가 성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바라문의 관념에서 여성은 집과 동일시되어 간주되었다. 여성 출가가 가져올 사회적 비난이 비구니의 수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에 충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하파자파티가 보인 ‘강한 의지’가 수반된 여성 출가 행보는 오늘

날 많은 여성들이 출가하여 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주었다. 이는 부처님 당대에 비구니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수행정진하면 여성 또한 남성과 같이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시초이다. 마하파자파티는 팔경계八敬戒¹⁾를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받았다고 전해진다. 팔경계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다. 팔경계가 부처님의 온전한 음성으로 전해진 것인가 아니면 시대를 거치며 점차 덧붙여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비구니건도에 의하면 백사갈마의 작법으로 구족계를 받은 비구들이 고타미에게 ‘화상이 없었던 점과 백사갈마에 의해 계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비난한다. 고타미는 부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팔경계를 받은 것이 곧 구족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초기 여성 출가자들은 팔경계를 통해 구족계를 인정받았으며 후에 비구니 승가가 안정을 찾은 뒤 마하파자파티를 중심으로 비구 승가와 같은 정식 절차를 밟아 구족계를 받았다.

팔경계 7번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구니는 비구를 질책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과 관련해 부처님을 찾아온 마하파자파티에게 ‘비구니는 비구에게 욕을 하지 말아야 하며, 꾸짖지 말아야 하며,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당시 출가를 원했던 초기 비구니 승가의 대부분이 석가족 여인들이자 비구들의 어머니 또는 부인들이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높은 신분과 미모를 갖춘 몇몇의 비구니 중에는 자신들의 높은 자존심을 꺾지 않았으며 나아가 인사를 하지 않거나 법을 설하여도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있었다.

초기 비구니 승가로 출가한 여성들은 왕족, 바라문 출신, 기혼여성 또는 미혼여성, 창녀, 노파 등 다양한 출신의 여성들이었다. 소양과 지식을 갖추었던 이들 외에도 규율이 잡히지 않은 이들 역시 비구니 승가에 들어왔는데, 비구니 계율이 348계나 되는 데에 일조한 육군 비구니(처신이 바르지 못 했던 비구니 집단) 틀라난다, 칸다칼리 등이었다.

1) 팔경계 : ①득도한 지 백년 된 비구니라 할지라도 모든 비구 당일 득도 한 비구라 해도 앞에서 공손히 합장하며 그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 ②비구들이 체류하지 않는 지역에서 비구니들이 우기에 안거하는 것을 금한다. ③보름마다 비구니들은 비구 승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물어야 한다. 즉, 비구니들은 포살일자에 대한 비구들의 의견을 묻고, 봇다의 가르침에 대한 설법을 청해야 한다. ④우기의 안거를 마치고 비구나 비구니가 보고 들은 어떤 것이 있거나 또는 여러 비구니 중 하나라도 어떤 의혹이 생길 경우, 비구니들은 그 잘못을 참회시키기 위해 이부승가二部僧伽에 삼사초청을 해야 한다. ⑤중한 잘못을 범한 비구니는 이부승가 앞에 보름 동안의 계율준수 시험기간인 마나타에 응해야 한다. ⑥비구니 구족계는 식자마나가 2년 동안에 육법계를 준수한 후에야 비로소 이부승가에 구족계를 받을 수 있다. ⑦어떠한 경우에도 비구니는 비구를 질책해서는 안 된다. ⑧비구니들은 비구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비구들은 비구니들을 가르칠 수 있다.

계율은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이들의 행동 때문에 제정되었으며 이것은 부처님의 의지에 의한 통제와 억압이 아닌 계율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율 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들은 교묘하게 계율을 피해 어기며 교활한 수법을 일삼았다고 전해진다.

선발주자로 승단을 이끌어 가던 비구 승가는 자연스럽게 비구니 승가를 이끌어 나갔다. 팔경계에 의지해 비구니는 비구 승가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비구 승가는 바라제 목차 암송, 포살 참여법, 잘못을 고백하는 법 등 승가의 일원으로서의 생활규범 등을 가르쳤다. 비구는 어떤 이유에서건 비구니가 법을 청하면 가르침을 전하려 가야 했으며 팔경계에 의거해 비구니의 안전을 위해 우기에는 비구 승가가 있는 곳에서 안거를 나야 했고 자자와 포살, 득도식과 같은 의식에 비구를 참석시켜 가르침을 전수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항들에 의거해 서로 의지하고 보호하며 지냈다.

부처님 당대에 여자도 수행하면 구경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해 바라문과 외도들은 의심을 놓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는 뛰어난 비구니들의 수행력과 정진력을 높이 칭찬하시며 의심을 제거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비구니(장로니)들이 아라한과를 중득하여 깨달음의 노래를 불렀으며, ‘부처님의 딸’로 당당히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부처님 입멸 후 초기의 순수했던 뜻은 쇠퇴해가고 의미 또한 퇴색되어 비구니 승가가 자립하지 못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가뭄, 전쟁, 국가적 탄압 등의 상황에서 위험에 놓였던 비구 승가가 비구니 승가를 책임지고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 비구니 승가가 스스로 결정 및 의식 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이유로 비구니 승단 내에 비구니가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인도 사회에서 비구니 승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

【참고문헌】

- 모한 위자야라트나 지음, 온영철 옮김 · 釋智觀 교역,
『비구니 승가 : 비구니 승가의 탄생과 변화』,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1998
- 민병숙(벽공), 「동아시아 비구니계율 전래와 수계의 변천」,
『불교연구 41호』 pp. 415~445, 한국불교연구원, 2014

나는 마음을 제어했고
신통의 기초를 잘 닦았다.
여섯 가지 곧바른 앎을 구현했고
깨달은 님의 교법을 실현했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은 창칼과 같고
존재의 다발은 그 형틀과 같다.
그대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이라 부르는 것,
이제 나에게는 불쾌한 일이다.

모든 곳에서 환락은 파괴되고
어둠의 다발은 부수어졌으니,
악마여, 이와 같이 알라.
사신死神이여, 그대는 패배했다.

〈우빨라반나 장로니의 시〉

『테리가타 - 장로니게경』







다시 시작점에서서

석인 / 대교과

칼 융은 일생의 곡선이 딱 반으로 나누어진다고 했다. 그중 전반은 관계의 시간이며, 나머지 후반은 자기 안의 삶의 감각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바깥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과 관심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찾아온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이……. 이전까지만 해도 애써 견뎌내야 했던 것을 이제는 알고, 사랑하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깨달음의 여정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는 모두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아니라고 발뺌하고 싶겠지만, 삶이 곧 여정인 것이다. 우리의 삶을 글로 옮기면 그것이 한 편의 시가 되고 역사가 되고 신화가 된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인생을 영웅의 여정에 비유했다. 태어남과 부름과 모험과 역경과 귀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웅의 여정.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은거해 버리지만 캠벨은 우리를 다시 독려한다.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다. 인생의 의미란 무엇이든 갖다붙이면 그만이다. 진정한 의미란 살아 있음,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을 경험하는 것, 고통과 기쁨 모두를 경험하는 것이다. 영웅의 여정의 목표는 여러분 자신이다. 즉 여러분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모험으로의 부름을 따르는 것에는 어떠한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다. 모험을 완성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반면 이런 부름을 거부하는 것은 부패를 의미한다. 부름이 거부되었을 때, 삶의 감각은 상실되고, 스스로 중심을 잃고 욕망과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 고통에 짓눌려 몸부림치고 있다면 용감히 모험을 떠나라.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넘어지려는 곳, 거기에 삶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영웅의 여정을 마치고 귀환하게 되면 현재에 깨어 있게 되고 의식은 더욱 확장된다. 이때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유아적 자아가 죽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이 탄생한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다. 습관적으로 했던 말과 행동은 멈추게 되고 진정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택을하게 된다. 그러므로 백 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깨닫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지와 욕망과 미움, 즉 삼독심 때문이다. 무지는 자아와 모든 현상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뜻이다. 현상에 대한 통찰을 키우고 욕망과 미움 같은 고통스런 마음을 제거하면, 완전히 순수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두려움과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클레스바라고 하는데 이는 ‘내면으로부터 괴롭히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단어는 종종 망상으로 번역되는데 망상은 마음에 고통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깨며,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이다.

원효 스님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猶如幻虎 還吞幻師라 – 환사幻師는 마술사고 환호幻虎는 이 마술사가 만든 허깨비 호랑이로, 마술사가 자기가 만든 호랑이가 덤벼드는 것을 진짜로 착각해서 도리어 잡아먹힌다.’라고 하셨다. 인간은 모두 환사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몇대로 대상들을 지어내고, 대상들의 성격을 부여하고 그것에 함몰되어 고통 받는 것이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망상은 마음의 근본적인 본성 속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반대의 힘이 적용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셨다. 망상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력은 지속적인 평온함과 특별한 통찰을 결합하는 지혜이다. 우리는 지혜의 수행을 강화하고 이를 최대한 발현시킴으로써, 망상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삶이 고통스럽다면 당신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역경에 빠져 고군분투 중인가요. 아니면 끝없이 도망치고 계신가요. 두려움을 대면하고 지혜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여정을 마치고 귀환한 영웅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keep going! 의미는 스스로 부여하십시오. 알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낸 본향本鄉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

다로경권 茶爐經卷 – 백차白茶의 매력

수완 / 사집파



백차의 매력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먼저 차의 발상지인 중국차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의 차 역사를 살펴보면 신석기시대의 “신농씨상백초神農氏嘗百草”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에 의하면 신농씨가 인간에게 맞는 약을 찾아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초근목피를 채취하여 먹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독초를 먹고, 그때마다 찻잎으로 해독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차도 약과 같이 “복服”한다고 함으로써 약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당 시대의 육우陸羽가 저술한 『다경茶經』에는 차의 정의, 발생지, 산지, 재배방법, 채취, 제조방법, 차를 끓이는 물, 깍다喫茶의 용구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차의 약리적 효능까지도 명확히 기술해 놓았다. 그에 의하면 찻잎에는 카페인, 훼늘, 단백질, 아미노산, 탄수화물, 리포이드 등 유기화합물이 450종 이상 포함되어 있고 나트륨, 칼슘, 철, 불소 등 무기영양소가 풍부하여 영양에서나 약리면에서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찻잎은 최고의 약재가 되고 차는 최고의 음료로 정착되었다.

차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는 차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발효發酵 정도에 따라 불발효차, 반발효차, 발효차, 후발효차의 네 종류로 나눈다. 또, 차의 제법, 품질의 계통 및 응용습관상의 분류와 플라바놀류(黃烷醇類) 함량의 다소에 의하여 녹차綠茶, 황차黃茶, 흑차黑茶, 백차白茶, 청차青茶, 흥차紅茶 등 여섯 종류로 구분된다.

오늘의 주인공인 백차白茶는 민간에서 “일년차一年茶, 3년약三年藥, 7년보七年寶”라고 불린다. 전설에 의하면 요제시대堯帝時代에 복정태모산福鼎太姥山에 남고藍姑라는 분이 있었는데 녹설아차綠雪芽茶로 홍역(麻疹)을 고쳐서 그 지역에서는 ‘태모낭랑太姥娘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 태모낭랑太姥娘娘이 심은 녹설아차수綠雪芽茶樹가 바로 4000년 전의 고백차古白茶이다.

중국 백차가 수천 년을 지내면서 오늘날까지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인의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이념 때문이며 백차의 약용가치藥用價值가 깊을 뿐만 아니라 제다방법인 자연 위조萎凋과정이 약초草藥 제작방법과 제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백차는 백호로 덮여진 은색으로 바늘과 같이 가늘고 길다 하여 ‘백호은침白毫銀針’이라 불리고 채차菜茶의 아두茅頭가 뾰족하고 가늘어서 건다乾茶일 때는 백호가 밖으로 드러나며 ‘미모眉毛’처럼 되기에 ‘공미貢眉’라고 한다.

백차의 제다방법은 주로 일광위조, 혹은 실내위조를 한 다음 건조시키는데 일건, 풍건, 홍건烘乾이 있다. 특별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건조시키면서 약간의 발효만 시키기 때문에 제조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 천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다방법 또한 백차의 매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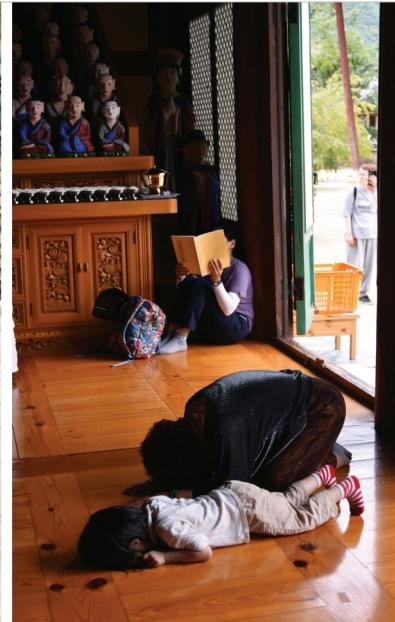
요즘은 이러한 전통적인 제조방법 외에 신공예백차新工藝白茶라고 해서 대만에서는 제다과정 중에 살청殺青과 경도의 유념揉捻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차는 약간의 오룡차烏龍茶의 향기를 품고 있기에 홍콩에서 인기가 아주 대단하다.

백차는 일정한 시간의 위조과정을 거치다보면 찻잎의 색깔이 ‘녹엽홍근綠葉紅筋’으로 변화되기에 ‘홍장소과紅裝素裹’라는 말이 있다. 또한 향기가 맑고 맛이 산뜻하고 은은한 꽃향과 담백한 맛이 나며 향기가 굉장히 상쾌하고 맛도 가벼운 덕에 남녀노소가 다 받아들이기 쉬운 차다.

그리고 저장된 기간에 따라 향과 맛, 향색의 변화가 아주 크다. 새 차는 꽃향이 나고 5년 정도 된 백차는 진향陳香이 나며 20년 된 차는 약향藥香이 나며 40년이 되면 나무향이 난다. 시간이 오래되면 될 수록 향기와 향색의 변화가 깊고 다양해진다.

백차는 여름에 열을 내리게 하며 피부노화 예방, 지방질을 제거하여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黃酮類)는 심혈관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효능이 있으며 진년노백차陳年老白茶는 인체면역력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라 항암, 항염, 살균, 자유기청결작용, 항응혈작용 등 다양한 보건기능을 갖고 있기에 이 또한 백차의 매력이다.

백차의 매력을 이 짧은 문장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다인茶人으로서 또한 수행자로서 저는 항상 차를 마시게 해준 인연들에게 감사드린다. 찻잎을 따고 만든 사람의 수고와 차를 기른 땅과 비와 햇살과 바람의 인연에도 고마움을 느낀다. 차를 마시게 해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항상 혼자 미소를 짓는다. 깊어진 가을의 길목에서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꽃향, 진향, 약향, 목향내 나는 백차 한 잔씩 공양 올린다. ☺



① ②

각자의 벼락을
거두는 때

편집부



⑤ ⑥



⑦ ⑧

⑨



③ ④

① 회주스님 사랑해요

② 오백 나한님께 나도 큰절 할래요

③ 푸른 하늘과 감.

④ 가을은 은행나무 아래서—화엄반

⑤ 요기요기요,

⑥ 송편 찌러 가는 길

⑦ 대추 안에 벼락이 몇 개…….

⑧ 산행 가는 사집반

⑨ 나의 부처를 빛을 수만 있다면—치문반

⑩ 금당간경의 복

⑪ 선배님 반갑습니다

⑫ 운문사 입구 벚나무길

⑬ 우리밭 고추가 이렇게 익었어요

⑭ 동문회 무쌈 드시고 가세요—사교반



⑩

⑪ ⑫
⑬ ⑭

경주 남산기행

- 굽이굽이마다 울리는 찬불가

우연 / 대교과

지난 6월 10일 화엄반 일행은 부처가 머무는 영산인 경주 남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처님이 가피를 내린 듯 무더운 여름날인데도 산길 걷기에는 좋은, 시원한 날씨였습니다.

천 년 전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도시 경주, 신라 왕도였던 서라벌의 남쪽에 솟아 있는 타원형의 화강암 바위산인 남산은 한 마리 금거북이 서라벌 깊숙이 들어와 편안히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외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문화유적이 많고 압축된 불국토라 불릴 만큼 불상과 탑이 많은 남산기행의 참뜻은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유적들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감상하고 그 시대 조상들이 추구했던 정신문화와 부처님의 세계를 갈망했던 신앙을 읽는 데 있습니다.

서남산 삼릉에서 출발할 경우 가장 많은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 년의 세월과 각각의 시대를 증언하는 배동 삼불사의 삼존불과 삼층석탑을 둘러본 다음 삼릉으로 향했습니다. 골짜



기에는 신라 때의 능으로 추정되는 세 개의 왕릉이 있고 주위에는 소나무들이 줄지어 지키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이 여실히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계곡을 오르면서 부분체의 불상과 불탑을 만난 다음, 마치 하늘에서 날아 내려오는 듯 자연적으로 입술이 붉게 된 마애관음보살 입상과 선각육존불을 대하였습니다. 커다란 병풍바위에 선으로 그린 듯 동쪽은 석가모니 삼존불, 서쪽은 아미타 삼존불을 새겨놓았는데 이생과 이생 너머의 행복

한 세상을 갈망하는 조상들의 염원이 천 년을 넘어 오늘날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남산에서 제일 작은 상사바위의 석불과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두었다는 ‘바둑바위’를 지나 상선암에 도착하여 참배도 하고 마애여래좌상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목탁에 맞추어 반야심경을 하며 사홍서원도 세워 보았습니다.

다시 용장사 계곡에서 설잠 김시습이 세속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여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을 썼던 유명한 용장사 절터와 운문사 달력에서 많이 보아온 삼층석탑을 보았습니다. 이 탑은 바위산 전체를 기단으로 산 위에 우뚝 솟아 하늘가에 닿아 있는 듯 어디서나 한눈에 들어옵니다. 천하 제일의 탑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삼층석탑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는 삼륜의 대좌로서 머리가 잘려 나간 불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만약 미륵불이라면 자연석 4층 기단은 천상의 4왕천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이 미륵부처님께서 용장사 대현 스님이 지극한 마음으로 탑을 둘 때마다 함께 머리를 돌렸다는 『삼국유사』의 일화도 알게 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불교공인 후, 당시 서라벌 시가지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절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총총하고 寺寺星張

탑들은 기러기처럼 줄지어 늘어섰다 塔塔雁行

천 년 불교 고도의 중심, 남산의 골짜기마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유적들이 걸음걸음마다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온전히 남아 있는 것들은 그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를 매혹시키며 시원한 전망을 거느리고 온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가 하면, 온전치 못 한 폐탑, 폐불들은 깊은 골짜기에 고요히 숨어 있으며 그 처연함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풍성했던 시절, 딛고 있는 그곳이 미륵세상이요, 찬란한 불법 세상을 그 자리에 세우고자 했던 조상들의 염원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에 정치적 부대낌과 심한 풍상도 입었지만

바위마다 새겨진, 당시 민중들의 사상과 염원, 풍속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화강암으로 뒤덮인 남산 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환희로운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며 돌아오는 길에 화강암같이 굳어져 있는 내 마음에서 어떻게 부처를 쪼아내어 이 사마세계에 불국토를 일으킬 것인가를 그려보았습니다. 경주 남산 곳곳의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들, 그 얼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불법의 향기를 맡고 싶은 이라면 남산을 꼭 한번 올라가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모르고 넘으면 단지 아담한 산일 뿐이지만 마음 열고 귀 기울이면 구구절절 마음을 울리는 찬불가임을 실감할 것입니다. ♣



기도

총지 / 사집과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구심점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하여 감춰져 있던, 또 외면해 왔던 참나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내면을 관하는 기도란 마치 턱 끝에 칼을 맨 듯, 살얼음 위를 걷듯, 매 순간이 고비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잘난 줄만 알았던 자기 자신이 그토록 나약하고 못났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초심자 때는, 모든 것이 덧없으니 집착을 버리라는 반야심경을 외우며 사업 성취나 자손 창성을 축원하는 것이 너무나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스님들의 지극한 염불 소리 독송 소리에 곧 의문이 풀렸습니다. 상대에 따라 팔만사천 가지 화현으로 나투시어 각각의 근기에 맞는 대기 설법에 따라, 처음에는 시험 합격이나 건강 발원 등 여러 방편으로, 불법을 아직 만나지 못 한 이들에게 다가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물리적 대가가 아닌 본연의 성품을 바로 보아 참된 나를 가리고 있던 거짓된 나를 벗겨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더러 각각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팔만사천 가지의 기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만 배 기도, 500배 기도 등의 절 기도를 시도해보기도 하고 모래 지게에 모래를 한가득 지고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내리는 육체적 기도를 시도해보기도 하였고, 현재는 30분 동안 1배의 절을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초가 아닌 30분 동안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절 한 배를 지극하게 올립니다. 호흡을 최대한 길게 끌어 관-세-음-보-살을 외면서 아주 천천히 1배를 시작합니다. 만 배 기도를 할 때는 육체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 보려 아픔을 느낄 새 없이 빠르게 절을 했다면 이 기도는 절 한 배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동작을 관하며 흥분되었던 마음을 차분히 하는 기도입니다.

처음 ‘30분 1배’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는 3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져 계속 시계를 보며 마음을 곤두세웠었지만, 어느 순간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끓어 호흡 합장을 하는 동작을 지나 고두례를 하고 다시 상체를 세워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 길게 호흡하다 보면 30분이 지나 있었습

니다. 바깥 경계에 화내고 기뻐했던 마음들이

관~ 하는 순간 희미해지고
세~ 하는 순간, 조용해지며
음~ 하는 순간 툭 하고 떨어집니다.

어느 날은 들떠 있던 마음이 공손해지는 기도였으며 어느 날은 묵혀 두었던 분심을 쏟아 내는 기도였고 또 어느 날은 무기력에서 빠져 나와 생기가 돋는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법당 문을 열었을 때 맑고 투명한 하늘에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을 보며 환희심이 돋는 날도 있었습니다.

‘30분 1배’ 기도는 이렇게 저에게 끊임없이 중간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무아무심의 상태, 관세음보살 한 호흡, 그리고 1배의 절 세 박자 가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쌓여 욕계에 난 고통을 감내하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는 동안 감정들이 증폭되어 더 큰 삼독심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원래 없던 것이 아니라 눌러 놓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훑탕물을 휘저으면 가라앉았던 모래들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훑모래와 같은 번뇌 망념들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기는커녕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호흡이 깊지 않아 생각이 내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에 기도에 대한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기도상’을 만들고 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희생, 고통 없이 아주 큰 것을 바라는 도둑 마음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저 자신이 모순 그 자체라는 것, 수행자 형상에 삼계화택 중생 마음이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느끼며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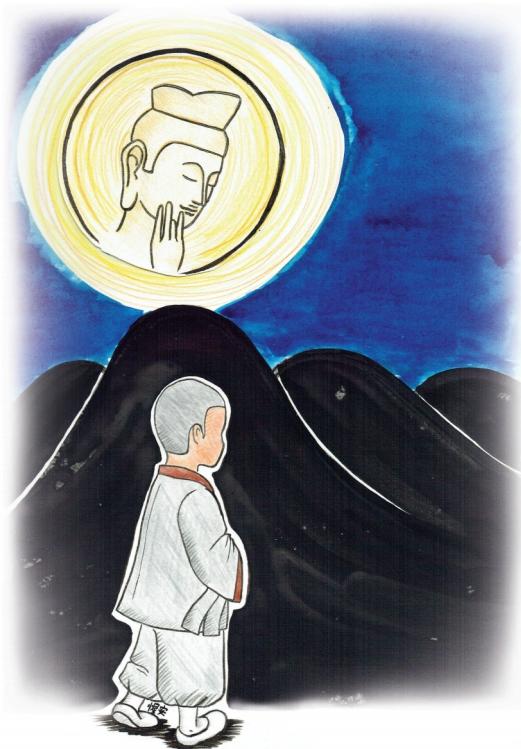
그러한 못난 나를 보고 인정하는 순간 한 생각이 놓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 바라본 타인의 모습은 진실이 아니며, 나 또한 정견으로 바라본 진리가 아니기에 함부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각각 그대로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단박에 이루겠다는 ‘폭발하는 신심’ 이 아니라 ‘그저 할 뿐’이라는 무심한 마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삼시 세끼 밥을 먹듯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저 역시도 기도하는 수행자로서의 자신을 잊고 타성에 젖어 퇴굴심을 낸 것을 반성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면 초심자인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고 싶을 때나 하기 싫을 때나 그냥 그 자리에서 저 자신을 보겠습니다. ☩

몸으로부터 마음 알아차리기

정연 / 사미니파



만, 현실은 집중하는 시간은 잠깐이고 마음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의 어딘가를 헤매거나 생각에 간혀 헛손질만 하고 있다.

다만 감사하게도 승려로서의 위의를 갖추기 위해 배운 습의들이 몸 알아차림의 적절한 기준이 되어준다. 예를 들면 만의장삼을 수할 때 발을 붙여야 하는 것, 발우공양 시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팔을 몸에 기대거나 하지 않고, 앉을 때 발이 보여서는 안 되며, 입선 시 경상 위에 팔을 올리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출가 후 자주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하라’는 말이었다. 습의사 스님은 차수한 손이 비벼질 때의 느낌 등에 대한 알아차림을 얘기하면서 몸부터 관찰해야 미세한 마음도 관찰할 수 있다며 몸부터 잘 관찰할 것을 자주 말씀하셨다.

초기경전인 『대념처경』에서는 신(몸) · 수(느낌) · 심(마음) · 법(마음의 대상인 법) 4가지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사념처 수행이라고 한다. 그중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주요 대상으로 호흡을 비롯한 행주좌와 4 가지와 지수화풍 사대에 대한 알아차림 등이 있고 몸에 대한 혐오감, 시체에 대한 주시 등이 있다.

호흡하고 앓고 걷고 말하고 먹고 눕는 등,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의지와 집중력이 있다면 하루 종일 관찰할 수 있겠지

실제로 만의와 장삼을 수할 때, 습의 시 두 발을 붙이는 것이라 배웠는데, 매번 수할 때면 저절로 의식이 아래로 내려가 발이 꼭 붙어 있는지 살피게 되고(실제로는 의식이 발로 이동하려는 의도를 갖는 순간, 벌어져 있던 발도 붙이게 된다) 발우공양 때에도 행익이나 공양에 집중하다가도 수시로 허리가 퍼져 있는지 살피게 된다. 특히 입선 시간에 필기 등을 할 때, 몸을 한쪽 방향으로 틀고 경상 위에 손을 올리고 하는 습관이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아 입선 내내 몇 번씩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한다.

그래도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몸 알아차림의 시간은 역시 걸을 때이다. 특히 하루에도 몇 번씩 걷게 되는 정랑 가는 길은 수행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이다. 지대방을 나와 청풍료 뒷마루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바닥과 발의 맞닿음, 필요한 속도로 걷되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발에 실리는 무게의 적당함, 고무신을 신기 위해 몸을 돌릴 때의 움직임, 걸을 때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움직임, 발바닥 전체보다는 발 바깥쪽을 이용해 걷는 소소한 버릇, 개미들을 피하기 위해 갈지자로 걸을 때 발의 변화, 중간중간 의식을 위로도 옮겨 구부정한 등과 굽은 어깨도 한번 펴주고는 다시 아래로.

정랑에 도착해서도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건, 얼마 전에 알아차린 습관 덕분이다. 결국에는 정랑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몸을 움직여서인지 정랑에 도착한 순간, 주의가 끊어지고 머릿속에는 볼일(?)을 보겠다는 목적만이 가득하여 실내화를 끌면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차’ 하는 순간이었다.

또 정랑을 이용하거나 청소하다보면 변기 안의 오물을 보며 더럽다는 생각으로 혐오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오물은 원래 이 몸에서 나오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다 하여 똥오줌을 내내 담고 다니는 이 몸은 귀하고 깨끗하다 여기고, 보이는 오물은 더럽다 여기니 ‘이런 것이 전도망상 아닌가?’ 하고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몸 관찰의 장점은 단순히 몸을 관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강원생활에 필요한 습의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행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된다. 유쾌할 때와 불쾌할 때 몸의 움직임이 확연히 다르고, 때로는 미처 인식하지 못 했던 자신의 어떤 모습이나 마음상태를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발견하기도 한다.

물론 알아차리겠다고 의지를 내어도 순간 번뇌에 쌓여 마음이 어디론가 해매기 일쑤라 상반스님에게 걱정도 자주 듣는다. 알아차렸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잊지 않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걸어간다면 분명 조금씩 바른 수행자의 삶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

유마 거사가 바라본 불국토의 세상

서론 / 사교과

불국토,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불국토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행한 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저도 늘 막연한 곳으로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유마경』이라는 경전에서 유마 거사가 보여주는 불국토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마 거사가 보여주는 불국토의 세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 거사를 소개해드리자면, 유마 거사는 무동여래와 같이 묘희세계에 계신 분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성숙시키기 위해 방편으로 바이샬리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돋는데,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 재산을 가진 거부, 즉 재벌이고, 부처님께 셀 수 없는 공양과 선행의 공덕으로 무생법을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방편바라밀을 통달해 신통이 자유자재한 인물로서 남녀노소 부귀빈천과 상관없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유머와 따뜻함을 소유한 사람으로 모두의 공경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공덕을 갖춘 유마 거사가 어느 날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왕을 비롯하여 고관대작, 즉 현대로 말하자면 정치인, 기업가 등 사회적 명망을 갖춘 온갖 유명인사들 수천 명이 문병을 가기 위해 이릅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병문안을 다녀올 것을 권유하여 문수사리가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문수사리는 유마 거사에게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이에 유마 거사의 병의 원인이 ‘대비심’ 때문임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자식이 병들면 부모님도 병이 들고, 자식이 병이 나으면 부모님의 병도 낫는 것처럼 중생이 먼 과거부터 무명과 삶에 대한 갈애를 일으켜 장구한 세월, 생사윤회를 하면서 병들어 있는 모습에, 대승의 보살 유마 거사는 중생에 대한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정말 유마 거사가 병이 들어 아픈 까닭이 대비심 때문이라면 어찌 우리는……. 그러한 간절하고 진실한 광대한 자비심이 없는 것일까요. 중생이 아픈데 왜 유마 거사가 아픈 것일까요? 그리고, 왜 나는 중생이 아픈데도 아프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대승불교 핵심이 지혜와 자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지혜를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세상 이치에 대한 이해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결과로 대자비심을 갖게 되는 것이며 결국 우리는 자비심과 더불어 지혜가 밝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에 따뜻하게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마 거사에게는 ‘너 그리고 나’가 아니라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인 것입니다. 너와 나, 주관과 객관, 부처와 중생,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삶과 죽음, 자연과 인간, 행복과 불행 등 끝없이 펼쳐진 이 상대적 세계에서 우리는 생의 전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마경』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이 상대적 세계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너와 나를 둘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작은 아니었을까요? 서로 돋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양보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들에게, 불이不二사상 이야기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반야공과 불이사상을 이 현실세계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수행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시작은 아득다라삼막삼보리심, 즉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결심한 오백 명이나 되는 훌륭한 청년들이 부처님께 보살님들과 부처님들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500개의 일산을 하나의 커다란 스크린으로 변화시켜 온 우주의 크고 넓은 다양한 모습의 부처님과 그 부처님들이 설법하는 모습을 화려하고 장엄한 영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감동한 보적이라는 청년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찬탄한 후 부처님들의 세계를 알고자 하여 그 청정한 불국토의 모습과 불국토를 청정하게 할 수 있는 수행에 대해 질문하는데요, 이에 부처님의 놀라운 답변은 바로 ‘중생들의 국토가 곧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들의 세계, 극락정토는 지금 여기 내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마경』 「불도품」에서는 높은 육지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고, 낮은 곳의 더럽고 습한 진흙에서 연꽃이 피는 것과 같이 일체의 번뇌 속에서 지혜의 보배를 얻어야 함을 역설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불이를 강조합니다. 즉 번뇌와 중생을 떠나서 지혜나 깨달음, 불국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진흙과 연꽃의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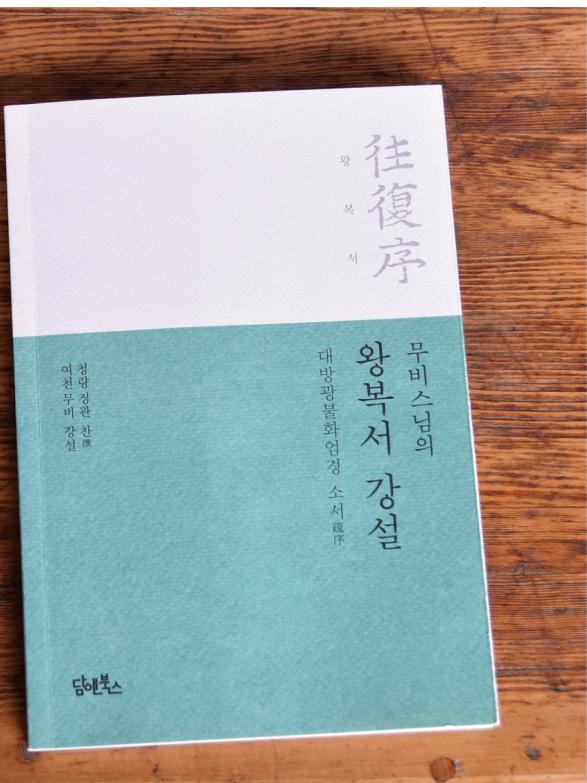
『유마경』이 보여주는 불국토의 세상, 진흙 속에서 편 연꽃의 향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마경은 불이라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어떠한 새로움도 ‘너는 나, 나는 너’라는 이 본질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상대성의 세계에서 깨어나 둘이 아닌 불이의 세계에 눈을 뜰 때, 우리들은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임을 믿으며 이번 차례법문을 마치겠습니다. ☯



나날이 수행정진하게 하소서

– 무비 스님의『왕복서 강설』

타용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往復序

어느덧 청명한 하늘이 높아지고 말들이 살찌는 가을이 완연해졌다. 이 산 저 산 나뭇잎들이 갖가지 색깔로 울긋불긋 화장장엄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 가을에 우리 의식도 살찌울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할까 한다.

대장백이신 무비 스님께서 번역하고 강설하신 『왕복서 강설』이란 책이다. 그 첫 구절이 ‘往復이 無際나 動靜은 一源이라……’로 시작해서 흔히 「왕복서」라 불린다. 이 글은 중국 당나라 때 화엄종 제4조인 청량징관 국사가 암도적인 분량의 『화엄경』의 내용을 772자로 축약해 놓은 것이다. 그는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인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를 썼는데, 「왕복서」는 대방광불화엄경소(疏)의 서문이다.

이 「왕복서」에는 우주 법계 연기의 특징적인 모습을 열 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十玄文), 그 비유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아름답다.

隱顯俱成 似秋空之片月 은현구성 사추공지편월
重重交映 若帝網之垂珠 중중교영 약제망지수주

숨고 나타남이 함께 이루어짐은 가을 하늘의 반달과 같고
거듭거듭 서로 비춤은 제석천 그물에 드리운 구슬과 같도다

그러나 화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축약해 놓았기 때문에 깊고 오묘한 이치를 깊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현재 부산 문수경전연구회에서 여러 스님과 재가 신도들에게 화엄경을 강의하시고, 인터넷 강원인 ‘염화실’ 카페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널리 법보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무비스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우주 법계의 이치를 설한 「왕복서」를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하시고 강설하셨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깊은 뜻을 새기고 감동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무비스님께서는 이 책에서 청량정관 국사의 「왕복서」를 10門으로 나누어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재미있는 이야기와 군데군데 화엄경의 인용문을 섞어서 자세하고 풍부하게 뜻을 강설하신다. 그야말로 ‘왕복서 최초의 번역 및 강설’이라는 역사의 한 획을 그으셨다. 한자한자 읽어가다 보면 마치 불보살님께서 옆에 오셔서 자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듯하다.

강원시절 「왕복서」를 공부할 때 ‘아! 이런 멋진 세계도 있구나.’ 하고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던 기억이 있다. 이제 한문불전대학원에 와서 보게 되니 그 뜻이 새록새록 더 깊고 오묘하게 다가오는 듯하다. 한 번 읽을 때보다 두 번 세 번 읽으면 읽을수록 뜻이 풍부해진다.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내용들이 한꺼번에 환하게 드러나고 감동과 환희심이 솟는다. 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세계인가?

청량국사는 102세까지 사는 동안 일곱 황제의 국사였고, 문수보살이 살고 있다는 중국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 오대산(청량산)에서 일평생 화엄경을 연구하면서 받은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 내가 이 화엄경에서 죽어야겠다. (得其死所)’

이 경을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읽기를 계속 반복하여 익숙해지면 깊고 오묘한 우주법계의 이치를 언젠가 환하게 깨닫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어느덧 나도 청량정관 국사처럼 ‘得其死所(내가 이 몸을 바쳐 죽을 곳을 얻었다)’를 떠올리고 있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다행이고 그 중 불법 만난 것이 다행이며 좋은 운문사 학인과 훌륭한 교수스님들을 만나게 된 것은 더욱 다행한 일이며, 명성 회주스님과 일진 윤주스님의 지도하에 불법을 배우게 된 것은 더더욱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 글을 통해 모든 교수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공덕만행으로 아름답게 장엄해 갈 때 이것이 진정한 화장장엄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늦은 가을 바람이 차다. 높이 뜬 청명한 달의 광명이 청풍료 창에 비치는 가을밤에 이 글을 맺는다. ☯

정견과 보살의 원행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여실한 것
이 무엇인지를 깨뚫어 본 사람이라면 능히
탐진치 삼독으로 점철된 삶의 기득권을 놓
아버릴 수 있다.

한 번은 크게 베릴 줄 알아야 원행願行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불가에는 ‘위대한 포기’라는 아주 아름
답고도 처연한 말이 있다. 2600여 년 전, 인도 북부
에 있던 샤카족의 왕자 고타마 싯다르타가 삶의
‘고 苦’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모두 버
리고 출가 사문이 되어 숲 속으로 들어간 일을 두
고 이르는 말이다.

기득권을 놓아버리고 가지 않은 길을 택하는
것, 나를 버리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산다는 것,
이 보살의 길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 자
체로서 우리들의 가슴을 울린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여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뚫어 본 사람이라면 능히 탐진치 삼
독으로 점철된 삶의 기득권을 놓아버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보다 큰 그림으로써 이 세상의 기득
권을 갖지 못 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와 불공정하게
핍박 받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기의 사회적 지도층이 보여 준 노
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그랬고, 우리나라 일제 강
점기에 사회 지도층인 우당 이회영 선생 등 많은
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 재산을 팔아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일이 그랬고, 현대의 민주주
의를 뿌리 내리기 위해 헌신한 우리의 앞선 세대들
이 그랬다.

이분들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의 기득권을 갖
고 태어났지만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 반칙하지 않
았고 오히려 사회의 도덕적 의무를 기꺼이 짊 짚으
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그 기득권도 모두 내려놓
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산문 밖에서는 기득권과 공정성을 문제로 만들어 연일 시끄럽다.

이는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개인의 성숙한 사고의 전환으로 극복되어야 할 일이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태어난 기득권을 이용하여 자신만을 위하거나, 한번 성취한 기득권을 카르텔화 하여 자신들만의 권력을 구축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들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견제되어야 한다. 이 견제 속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 사랑,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무량한 우주에서 콩알보다 작은 푸른 지구를 공유하고 사는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기득권층에 의해 운동장이 기울었다면 기울어진 곳을 더 받쳐주고 불공정한 상황이라면 약자의 편에 힘을 실어 주면 된다.

기득권의 소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기득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가끔 아주 잘생기거나 무엇인가를 아주 잘하거나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우스갯소리를 한다. 우리 불가에서 는 이를 ‘인과의 도리’로써 설명한다. 간단히 말해서 선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를 받고 악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다. 만일 선업을 짓지 않고 악업만 짓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비록 지금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은 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다음 생은 고통스러운 삶을 예약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둘러싸여 끊임없이 나를 고집하고 내 주변에 집착하여 이 세상이 환상인 줄 모르고 고통에 휘둘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우리 사회에서 계층상승으로 기득권을 갖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자신들만의 권력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짓밟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이 모든 것은 우리 무명 중생의 어리석은 삶이다.

이 어리석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견正見이라는 지혜의 등불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견을 바로 세워야 한다. 행복한 삶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전후를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지혜의 등불로 깨뚫어 본 사람은 한번은 크게 벼릴 줄 안다. 그것이 기득권 삶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는 일이거나 또는 내면의 참자유를 향한 ‘위대한 포기’ 이거나 우리 시대 보살의 원행願行이 될 것이다. ♣

운문소식



▲ 제41회 오백전 100일기도집재



▲ 제48회 총동문회



▲ 치문반 첫논강



▲ 조사전 다례제



▲ 화엄반 성지순례신중기도

- 9월 5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8일 오백전에서 제41회 오백나한 100일기도 입재를 하였습니다. 입재식 후 대웅보전에서 주지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 9월 13일 추석날, 대웅보전에서 새벽마지 후 비로전에서 추석다례를 모셨습니다. 학인스님들은 추석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9월 23일 제48회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있었습니다. 명성 회주스님을 비롯하여 총400여 명의 졸업생 스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총동문회에서는 23회 졸업생 스님들이 회장단을 맡아, 신임 동문회장으로 일지 스님(인천불교회관 주지)을 추대했으며, 제33회 현웅 스님(석사과정)과 제55회 혜공 스님(학사과정) 등 학인스님 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 9월 27일 저녁 예불 후 청풍료에서 가을철 첫 자자가 있었습니다.
- 9월 28일 저녁 예불 후 청풍료에서 치문반 첫 논강이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교수스님들과 상반스님들이 함께 모여 논강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지런히 정진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 9월 30일 전 대중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였습니다.
- 10월 2일 ~4일 화엄반 스님들이 인도졸업성지순례 원만회향발원 신중기도를 3일간 비로전에서 봉행하였습니다.
- 10월 4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 10월 6일 동화사에서 승시 법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치문반 3명, 사집반 3명 총6명의 스님이 출전하였습니다.
- 10월 7일 조사전에서 다례제가 있었습니다.
- 10월 9일 대자원법회가 보리수 수목원에서 열렸고 그 후 대웅전 앞에서 문화예술사단법인 KUmuda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음악선율, 스님과 신도님들과 아이들이 어우러진 멋진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 10월 11일 ~13일 학감스님 인솔 하에 화엄반 11명, 사교반 14명의 스님들이 2박 3일간 전관사 국행수륙재에 다녀왔습니다.
- 10월 17일 화엄반 스님들이 15박 16일간 원법 교수스님 인솔 하에 인도성 ~11월 1일 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 10월 22일 ~29일 7박 8일간 가을휴강으로 치문반, 사집반 스님들이 출타를 다녀왔습니다.
- 11월 1일 ~3일 은행나무 관람을 위해 3일간 도량을 개방하였습니다.
- 11월 9일 ~10일 경주 The K호텔에서 열린 제66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35명의 학인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1월 10일 가을철 종강과 마지막 자자가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분

- 정해옥 • 부유부동산 • 이정숙 • 배종옥 • 하옥희 • 정용배
- 배호암 • 허효선 • 윤경숙 • 봇다선원법등거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운문사 비로전 악착보살

악착보살

신심청정 갈고닦아
반야용선 오르소서
가족인사 늦어지니
반야용선 떠나가네

던져주는 반야밧줄
一念으로 잡으소서
고통바다 험난하니
반야용선 오르소서

반야행 실천하고
8정도 선업닦아
극락정토 아미타불
결정코 친견하리

〈악착보살 전설〉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20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자 격	2020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모 집 인 원	사미니과 ○○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 집 기 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 형 방 법	시험, 면접
예비소집일	2020년 1월 13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전 형 일 시	2020년 1월 14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학장 진광 · 주지 운산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모 집 대 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0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 집 인 원	○○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증명사진 2매(3×4)
모 집 기 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당일 접수도 가능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 형 일 시	2020년 1월 14일(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일진 · 주지 운산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50호·2019년 11월 8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성경·편집위원·법성, 진견, 정연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성경(운문사 솔바람길) / 삽화·도현상, 성안, 진견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